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 차세대를 위한 속기 역사와 에디팅 교육 프로그램 개발

-조선시대 기록 전통 계승과 ESG 교육을 중심으로-

2022. 9.

**사단법인 한국형리더십개발원**

박현모(여주대학교 세종리더십연구소장)

본 보고서를  
“차세대를 위한 속기 역사와 에디팅 교육 프로그램 개발:  
조선시대 기록 전통 계승과 ESG 교육을 중심으로”  
연구 용역의  
최종 결과물로 제출합니다.

2022년 9월

## <목 차>

I. 문제제기 .....	1
II. 조선왕조 지배구조 투명성과 실록 전통 .....	4
1. 조선왕조 장기지속성 요인으로서 ‘공론정치’ .....	4
2. 세종이 정립한 ‘실록 전통’ .....	7
III. 조선시대 사람들의 환경 인식 .....	12
1. 조선왕조의 자연환경 관리 .....	12
2. 유교성리학자의 자연관 .....	14
3. 세종의 자연관과 생태계 위기 해법 .....	16
IV. 유교 지식인의 사회공헌 방법으로서 지방 교육 .....	19
1. ‘거대한 학교 국가’ 조선 .....	19
2. 지역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 자치성 추구 .....	20
V. 기록 전통의 확장 계승과 ESG 교육 프로그램 .....	25
1. 은퇴세대를 위한 속기사 ESG 교육 .....	25
2. 차세대를 위한 ESG 교육 .....	28
VI. 결론 .....	33
참고문헌 .....	36
■ 부록 : 실록에 있는 ESG 관련 기사 .....	41

## I. 문제제기

이 글의 목적은 세종실록에 기록된 세종의 국가경영 리더십을 ESG 경영 관점에서 재조명하여 속기협회의 은퇴세대와 차세대를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있다. ESG란, 기업이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개선해 미래에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경영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라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에서는 이미 기업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고, 우리 정부도 오는 2025년부터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의 ESG 공시 의무화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근 한국의 경제단체뿐 아니라 공공기관들도 연일 'ESG 경영전략'을 발표하고 있고,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ESG 비전'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ESG 경영에 관한 기존 연구는 대체로 '환경 분야'와 현대의 '기업 사례'를 소개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ESG의 한 분야인 '환경' 혹은 '생태' 분야에 대한 연구는 ESG 경영 논의가 시작되기 전인 1970년대부터 이뤄져 왔다. 예컨대 1974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모리나와 로우랜드 박사가 염화불화탄소(CFC, 일명 프레온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내용의 논문을 과학 잡지 「Nature」에 처음 발표한 이래(이원희 외 2009, 80쪽), 최근의 '재난성 대형산불 대응체계 분석'(주영국 2022)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경영학 분야에서도 ESG 경영 연구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ESG 경영혁신 사례(인천공항, K-water, 스타벅스, 쿠팡, 블랙야크 등)를 소개한 연구가 다수 있고, ESG가 재무성과 및 회계투명성, 그리고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장근배 2022, 두양 외 2022, 백길주 외, 2022; 손호철 외, 2015)이 분석되었다. ESG 평가 기준에 관한 논문도 다수 나오고 있다. 선진국 지수라고도 불리는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dex)와 무디스(국가별 ESG 평가보고서) 및 한국기업지

배구조원 평가지수를 토대로 된 K-ESG 지수를 제시하는 연구(황수덕 외, 2022) 등이 그 예이다.

기존 연구 현황에서 보듯이, 연구자들은 대부분 현대 공공기관이나 기업 사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환경 분야의 경우 『주역』 등 동양고전이나 『고려사』 및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환경에 대한 인식(곽신환 1987, 최영진 2000), 그리고 전통시대 조경관을 다룬 연구가 있다(이유직 1997, 오승봉 외 1997). 하지만 환경과 사회적 책임과 지배구조 투명성을 연결시키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대 연구자들도 아직까지 ESG 경영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대 연구는 1949년 최초의 논문(유홍렬, “세종과 우리문화”)이 발표된 이후 지금까지 한글이나 과학 혹은 음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5년 이후 ‘리더십 과정’, 즉 그러한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세종이 부딪친 장애물이 무엇이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연구하는 논제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가 시도하고자 하는 바,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국가경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다만 오항녕 등 몇몇 연구자들이 ‘실록학’의 관점에서 조선시대 사관(史官)제도 와 속기 및 기록관리 체계를 다뤘다(오항녕 2008; 박현모 2022).

본 연구는 ESG 경영에 대한 학문적 편향성을 보완하는 한편, ESG 경영이 또 하나의 규제나 일시적인 기업교육 트렌드가 아니라 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초중고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교육해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아울러 조선시대 사초(史草)를 작성했던 사관(史官)에 비유되고 있는 속기사(유순태 외 1998, 40쪽)의 직업적 가치 및 미래 방향을 ESG 경영 측면에서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속기사는 UN 미래 보고서에서 향후 10년 내에 사라질 직업의 하나로 꼽혔다(경남일보 2020.01.08.). 청소년들에게도 속기사는 잘 알려져 있거나 그리 선망하는 직업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속기 역사의 뿌리를 탐색하되 미래에 요청되는 수요를 발굴해야 한다. 우리나라 속기 역사가 서양보다 최소한 110여 년 늦은 20세기에 들어와 출발했다고 하기보다는 600여 년 전인 세종시대에 세워진 세계 최고의 기록문화 전통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리고 세종 때 만들어진 조선왕조실록의 체계는 ESG 경영 중 가장 실천하기 어렵다는 지배구조 투명성 차원에서 재조명되어야 한다. 그 점을 교육 콘텐츠로 만들어서 속기협회의 은퇴세대가 먼저 학습하고, 차세대인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럴 때 속기사라는 직업이나 속기협회가 지속가능할(sustainable) 것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조선왕조실록을 기록하고 편찬하며, 보존하는 과정에서 공공성을 확보한 세종시대의 선진적 관리 시스템을 ESG 경영 중 지배구조 투명성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한다. 아울러 조선시대 사람들의 환경 인식 및 지역 교육에 대한 생각을 세종의 ESG 경영에 초점 맞추어 재조명하려고 한다.

## II. 조선왕조 지배구조 투명성과 실록 전통

### 1. 조선왕조 장기지속성 요인으로서 '공론정치'

조선왕조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일본·영국 등 다른 왕조의 평균 수명(200~300년)보다 두 배가량 긴 수명을 유지했다. 따라서 ESG 경영이 추구하는 이른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조선왕조가 장기 지속된 원인은 두 차원으로 나눠서 접근할 수 있다.<sup>1)</sup> 먼저 대외적으로 중국 왕조와의 사대관계에 따른 대내외적 안보보장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Palais 1995)를 들 수 있다. 미국의 J. 팔레 교수는 주변 국가와 엄청난 국력 차이와 "불리한 지리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조선을 비롯한 한반도의 역대 왕조들이 500여 년이나 장기 지속(longevity)된 것은 "한국사의 특수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James B. Palais 1995, 424~25쪽).

"중국에 강력한 왕조가 있든, 아니면 이민족이 침입한 시기이든 간에 한반도의 왕조는 계속 보존되는 이러한 반복되는 패턴"과 관련해 팔레는 "그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나 운수로 치부해버릴 수 없는 특수한 현상"이라면서,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와 특수한 대외관계를 지적한다. 즉 "자칫 한국 사람들에게 지명적일 수도 있는 불리한 지리적 위치가", "실제로는 유리하게 기능했던",<sup>2)</sup> "역설적인 유산"이 그 하나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반(半)독립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동아시아의 사대질서에 적응해온 점, 그리고 예외적인 시기가 있었지만,

1) 조선왕조의 장기 지속된 원인 및 세종시대 공론정치에 대한 내용은 박현모 외 2006, 223~226쪽을 요약·정리하였다.

2) 실제로 북쪽으로 황량한 만주벌판과 결코 좋다고 할 수 없는 압록강과 두만강, 그리고 청천강이 천연요새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종환도 우리나라의 험한 산과 큰 줄기의 산맥이 "모두 어지러운 산이고, 깊은 두메이며, 위태로운 봉우리와 겹쳐진 뒷부리"라고 말하면서, "서융북적(西戎北狄)과 동호여진(東胡女眞)이 중국에 들어가서 한 차례씩 황제 노릇을 했으나, 홀로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이종환, 『택리지』 북거총론 / 산수). 마찬가지로 동남쪽을 둘러싼 바다 역시 일본을 비롯한 외국이 쉽사리 쳐들어올 수 없는 천혜의 장애물 역할을 했을 것이다.

중국의 특정 왕조에 도덕적 충성심을 고수하는 대신 중국대륙의 세력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실용적인 외교”(pragmatic diplomacy) 등을 들 수 있다(James B. Palais 1995, 423~424쪽). 요약하건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중국 왕조와의 사대관계에 따른 대내외적 안전보장, 그리고 사대교린(事大交隣)이라는 주변국에 대한 조선왕조의 유연한 외교 정책 등도 조선을 비롯한 한반도의 왕조들이 장수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

다음으로 국내적 요인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왕조는 ① “상유(相維)와 상제(相制)”(이중환 1751) 내지 “정당의 쟁의(爭議)”(안학 1923)로 표현되는 ‘제도 안의 상호간 견제장치,’ ② 국왕이 정치를 잘못했을 때 왕조를 바꾸지 않고 왕실의 다른 후보로 대체한다는 ‘반정(反正)의 정권교체 방식’(정옥자 1993), 그리고 ③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공론정치(Confucian deliberative politics)라는 정치운영 방식에 힘입어 장기 지속할 수 있었다.

세종시대를 포함한 조선조 정치에서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공론(公論)을 중시하는 정치라는 점이다. 유교 이념의 구현을 내세운 조선 왕조는, 국정 총괄자로서 재상의 역할과 언관의 면책특권을 『경국대전』에 명문화하는 한편, 국왕을 중심으로 한 주기적인 어전회의와 다양한 정치비평을 통해, 공정하고도 신중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정도전 등 조선 건국자들이 구상한 성리학의 정치체제론에 따라 형성된 ‘재상위임론’과 ‘간관론’, ‘유자(儒者)들의 의론[公論]을 반영하는 정치운영론’ 등이 그것이다.

말하자면, 조선왕조의 공론정치는 국가 중심인 국왕의 유학[聖學] 공부와 그 실천[教化]을 통해 천리(天理)와 민심(民心)에 합치되는 정치를 구현하려는 성리학 이념의 정치적 구체화이자, 정책결정 과정의 제도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천리(天理)와 민심(民心)에 합치되는 정치를 위



해 조선왕조는 중요한 국가정책을 공론에 따라 결정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었다. 각종 회의 및 언론삼사 같은 재조 차원의 토의와 검증의 장치가 그것이다. 물론 관학(館學, 성균관·사학) 및 향촌 유생들의 상소·권당(捲堂, 수업거부 운동) 같은 의견표출이라는 재야 차원의 언론도 중요했지만, 본 연구의 주제와 거리가 있어서 생략한다.

공론을 중시하는 정치 내지 공론화 과정을 통한 신중한 정책결정방식인 공론정치는 국왕이 참여하는 어전회의에서 단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주기적인 어전회의(상참·차대·경연)와 비변사 회의, 그리고 경연 등의 논의를 거쳐 주요 국정사안을 결정하는 모습이 그렇다. 뿐만 아니라 조선왕조는 다양한 형식의 정치비평(諫諍·간쟁)과 철저한 인사검증(黜經·서경), 그리고 백관의 논핵(糾察·규찰)을 통해서 부패를 차단하려 했다. 이를 위해서 인재의 선발과 파견(吏典)으로부터 사회기간산업의 관리(工典)에 이르기까지 국정의 총괄자인 재상에게 각종 회의를 주관하게 했고, 언관에게는 면책특권을 부여했다. 『경국대전』은 “왕의 악정(惡政)과 비위(非違)를 간(諫)하고 논박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간원과, “현재의 정사(政事)를 논평하고 문무백관의 치적(治績)을 조사·규탄하여 풍속을 시정하고 억울한 형벌을 밝히며 남사한 행실과 위계(僞計)를 금지하는” 사헌부와, “왕에게 경서를 강독하고 논평하는 임무를 담당”한 경연제도를 명문화했다(『경국대전』 이전 / 경관직).

이 중에서 공론정치의 핵심적인 기관은 사간원과 사헌부, 즉 대간(臺諫)이었다. 대간은 백관의 인사권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黜經)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간관은 재상과 함께 천하의 일을 엮고 천하의 일을 맡은”<sup>3)</sup> 직책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간을 비롯한 언관의 위상과 권한은 그보다 직급이 낮은 사관(史官)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그들의 언행과 그에 대한 반응이 사관에 의해 상세히 기록되었기 때문에 왕과 대신들도 함부로 언관을 대할 수 없었다. 말하자면 조선시

3) 정도전, 『삼봉집』 권10, 『경제문감下』 諫官.

대, 특히 전기의 사관들은 권력자들의 자의적 결정을 방지하는 한편, 관료사회의 자정(自淨) 기능을 수행했으며, 결정된 정책의 정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세종시대에 정립된 '실록 전통'은 그런 점에서 조선왕조가 장기지속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 2. 세종이 정립한 '실록 전통'

조선시대 실록은 춘추관에 소속된 사관(史官)들의 사초를 토대로 편찬된다. “좌사는 동작을 기록하고 우사는 말을 기록한다[左行右言·좌행우언]”(정조실록 7년 8월 16일)는 말에서 보듯이, 사관은 어전회의 등에서 각각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적어 2통을 만들어서 원본은 춘추관에 바치고(納草·납초), 부분은 자기 집에 보관하여 뒤에 참고가 되도록 한다. 실록을 편찬할 때는 한시 관청인 실록청이 설치되고, 총재관 이하의 각 관원이 임명되어 사관이 춘추관에 바친 납초를 비롯한 기타 각종 기록을 수집해 편찬한다. 초초, 중초, 완성본을 거치는데, 완성본은 사고(史庫)에 넣어 보관한다.

말하자면 실록은 아직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오고 간 국왕과 신하들의 '말'과 사관의 '사평(史評)'을 기록한 공식 자료이다. 따라서 사관과 실록 편찬자는 정치와 역사를 의식하여 특정인의 말을 부각시키거나 또는 은폐시킴으로써 그 당시의 세력 관계와 이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그 안에 담게 된다(기록·편찬 과정의 정치성). 실록은 국왕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서양의 GOD와 같은 역할을 했다. '현재, 여기'를 넘어선 '미래의 그 어느 누구'에 의해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열린 역사'인 것이다.

세종이 정립한 '실록 전통'은 이전의 연구에서 밝혔듯이(박현모 2022) 크게 네 가지로 집약된다. 그 첫째는 충실하고 상세한[該·해] 기록이다.<sup>4)</sup> 세종은 왕 앞에 상시 대기하는 사관과 승정원의 관리는 물론이고,

집현전 학사까지도 어전 회의 내용을 모두 기록하게 했다(세종실록 5년 6월 24일). 『태조실록』(국역본으로 587쪽)이나 『정종실록』(국역본으로 202쪽), 그리고 『태종실록』(국역본으로 3,217쪽)보다 『세종실록』이 월등히 분량이 많은(국역본으로 10,800쪽) 이유는 세종시대 들어서 다양한 기록 체제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그 둘째는 바로고 공정한[直·직] 기록이다. 세종시대 사람들은 국왕이라도 자기 재위 기간의 기록은 물론이고 그 이전 왕들의 실록을 보지 못한다는 전통을 세웠다. 세종도 자기 아버지, 태종에 대해 실록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궁금해했다. 그중에서도 제1, 2차 왕자의 난과 관련한 태종의 역할을 몹시 알고 싶어 했다. 권력 쟁탈 과정에서 자기 동생들을 죽이거나 쫓아 보낸 골육상잔(骨肉相殘)에 대해 사관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었다. 하지만 1431년과 1438년 두 차례의 논란 끝에 “전하께서 보신다면 후세의 임금이 반드시 이를 본받아 고칠 것이며, 사관(史官) 또한 사실을 반드시 다 기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하들의 반대를 받아들였다. 결과적으로 이는 ‘실록 전통’이 되어 후대 왕들이 실록을 보지 못하는 전거로 작용했다(세종실록 20년 3월 2일).

그 셋째는 사초(史草)의 원본성을 보전할 제도를 마련한 점이다. 세종은 사초 관리와 관련해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세웠다. 그 하나는 사초를 국가에서 거두는 시기를 사관 사후가 아니라 기록 대상이 된 국왕이 흥서한 다음에 사초를 수납하기로 하였다. 그렇게 해서 사초가 왜곡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다른 하나의 원칙은 사초의 원본성을 훼손한 자나 사초 내용을 누설한 자에 대해 엄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세종 때 성립된 사초관리[史草禁防 · 사초금방] 6조목을 보

4) 실록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인 『한서(漢書)』는 실록의 의미를 두 측면, 즉 곧음[直]과 상세함[該]으로 나누었다. “그 글은 곧았고, 적은 사실은 자세하였으며, 아름다움을 꾸미지 않았고, 악한 것은 숨기지 않았으므로, 그것을 일러 실록이라 하였다.”[其文直 其事該 不虛美 不隱惡 故謂之實錄]. 『한서(漢書)』 62, 사마천전(司馬遷傳).

면, 사초는 국서(國書), 즉 국가의 가장 중요한 문서로 간주되었다. 사초 전부를 훔친 자는 물론이고, 몇 글자만 도려내거나 지운 자도 참형이라는 최고형을 받았다. 사초 내용을 외부에 누설한 자 역시 참형 대상에 포함되었다. 심지어 사초를 지우거나 그 내용을 누설한 사실을 고발하지 않는 자도 중형에 처해졌다. 역모죄에 준하는 형벌이 사초 관련 범죄에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넷째는 실록의 안전한 관리 보전이다. 서양의 기록관리 역사에서도 기록물 자체의 충실성과 공공성 못지않게 안전한 관리 보전을 매우 중시했다.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은 그 원본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세종은 종래 서울과 충주 두 곳에만 보관하던 실록을 전국 네 군데의 사고(史庫)로 분산 보관하게 했다. ‘태조실록, 정종실록, 태종실록을 각각 네 본(本) 씩 인쇄하여 춘추관 실록각(實錄閣)과, 충주(忠州)·전주(全州)·성주(星州)의 세 군데 사고(史庫)에 나누어 간직하자’는 춘추관의 제안을 채택한 것이다(세종실록 27년 11월 21일). 그 중에 전주사고만이 임진왜란 때 보전되어 실록이 온전한 채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이 공정하면서도[直·직] 상세한[該·해] 국정 기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1434년(세종16년) 춘추관에서 왕명을 받들어 춘추관에서 ‘기사(記事)를 넓힐 구체적인 조목’을 수립했기 때문이다. 조선왕조실록 체계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조목’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사헌부·의금부는 다만 죄명의 계본(啓本)만을, 예조도 또한 변과·효순 등의 일반을 드문드문 실어 보낼 뿐이고, 그 나머지 각사(各司)는 모두 거행하고 있지 않사오니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지금부터 거듭 밝혀서 거행하게 하소서.
- ② 여섯 승지(承旨)와 좌·우사간(左右司諫)·의정부 사인·서연관(書筵官) 두 사람과 여덟 한림(翰林) 등이 비록 이미 시사(時事)의 기록을 맡고 있습니다. [...] 사헌부는 백관을 규찰하고, 승문원은 사대(事大)를 오로지 맡고 있으니,

(사헌부) 집의(執義) 이하와 (승문원) 낭청(郎廳) 중의 한 사람으로 하여금 사관(史官)을 겸임하게 하고, 경연관은 서연의 예에 의하여 두 사람으로 하여금 겸임하게 하여 **기사(記事)를 넓히소서[廣記事·광기사]**.

③ 예문관 직제학과 직관(直館) 두 관원은 별로 직사(職事)가 없으니, 청렴하고 정직하고 문학이 있는 자를 뽑아서 **법식에 따라 사관(史官)을 겸임하게 하여[兼帶史官·겸대사관]**, 날마다 본관(本館: 춘추관)에 앉아서 모든 대소 아문에서 보고하는 문서를 항상 점검(點檢)을 가하여 연월의 순서대로 편찬해서 곧 찬록(撰錄)하며, 국가의 예악(禮樂)·형정(刑政)·제도(制度)·문물(文物), 현재 행하는 사무로서 대체에 관계되는 것을 **모두 써서 유실됨이 없게 하고[悉皆書之 使無漏失·실개서지 사무누실]**, 송나라 조정의 고사에 의하여 '시정기(時政記)'<sup>5)</sup>라고 이름하여, **뒷날에 역사를 수찬할 때에 소용이 되게 하소서[後日修史之用·이위후일수사지용]**.

④ 대간의 상소와 신하들이 상서하여 일을 아뢰는 것을 기사관(記事官)으로 하여금 기록하여 바치게 하여 기재(記載)에 대비하소서.

⑤ 당상관 한 사람이 매월 한 차례씩 본관에 앉아서 시정기(時政記) 수찬(修撰)의 근만(勤慢)을 엄하게 검찰(檢察)하게 하소서.

⑥ 본국 사람으로서 사신으로 나가는 사람은 국가와 군민의 사체(事體)에 관계되는 것을, 서장관(書狀官)이 **보고 듣는 것을 기록하는 예에 의하여[聞見事件例·문견사건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써서 본관(춘추관)에 바치게 하되[備書首末 進呈本館·비서수말 진정본관]**, 항식(恒式)으로 삼고, 본관으로 하여금 검찰하게 하소서.

⑦ 시정기(時政記)는 다만 현재 행하고 있는 일을 쓸 뿐이니, 사관(史官)된 자가 시사(時事)를 갖추 기록하는 것이 비록 그 직분이기는 하나, 건문이 미치는 바의 인물이 현부(賢否)와 득실(得失), 비밀 등의 사물을 자세히 그대로 써서 사사로이 간직하여 두었다가 수납(收納)하게 하소서.

5) 그 당시 정무(政務)와 행정의 실상과 잘못을 기록한 1차 역사 기록물이다. ① 사관(史官)이 기록하는 사초(史草)와 ② 각 관청의 기록을 정리하여 편철한 것으로 구성된다. 『기록학용어사전』 2008, 한국기록학회.

⑧ 시정기 한 벌을 매양 포쇄(曝曬)하는 해[年]가 돌아올 때마다 법식에 의하여 충주 사고(史庫)에 갈무리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從之](세종실록 16년 11월 5일, 일련번호는 필자)

여기를 보면 세종은 첫째, 사헌부·의금부·예조 등 법과 풍속을 담당한 관리는 물론이고(①), 둘째, 어전회의 등 주요 국정 토론장에 배석하는 승지와 사간원 관리, 의정부 사인과 서연을 담당한 관리[書筵官](②), 셋째, 예문관 직제학과 직관(直館) 두 관원으로 하여금 춘추관으로 출근해서 크고 작은 모든 관청에서 보고하는 문서를 점검(點檢)하고, 연월의 순서대로 편찬해서 곧 찬록(撰錄)하게 했다(③). 넷째, 외교 업무를 위해 외국에 나간 사신들까지 사관 일을 맡게 했다(④). 뿐만 아니라 사관으로 하여금 어떤 인물의 현부(賢否)와 득실(得失), 비밀 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평가한 가장 사초(家藏史草)를 개인적으로 간직하게 했다(⑤). 다섯째, 세종은 기록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춘추관 당상관 한 사람이 매월 한 차례씩 춘추관에 출근해서 시정기 수찬(修撰)을 잘 하고 있는지를 엄격히 점검하게 했다(⑥). 여섯째, 안전한 기록물(시정기) 관리를 위해 포쇄(曝曬)하고 충주 사고(史庫)에 보관하게 했다(⑧).

지금 우리나라 기록물관리는 어떠한가?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 기록물관리 체제도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기록물관리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되어 있지만, 최근의 ‘대통령실 기록물 논란’에서 보듯이 대한민국은 아직 충실하고 상세하며[該] 바르고 공정한[直] 기록, 그리고 사초(史草)의 원본성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는 전통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 III. 조선시대 사람들의 환경 인식

#### 1. 조선왕조의 자연환경 관리

ESG 경영의 또 다른 이슈인 환경과 관련해 조선시대 사람들의 자연환경관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자연관에 대해서는 몇몇 선입견이 있다. 자연환경을 관리하는 법규가 영성해서 누구나 숲과 하천, 그리고 바다에 들어가 마구잡이로 개발하고 이용했을 거라는 선입견이 그 하나다. 이런 선입견은 조선시대 환경 관련 법규에 대한 무지와 개항기 조선에 온 서양 선교사들의 자연환경에 대한 기록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

예컨대 L.H. 언더우드는 『상투의 나라』 첫 문장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나는 1888년, 구름 끼고 바람 부는 3월 어느 날, 조선의 제물포항에 도착했다. 해안을 바라보니, 눈으로 덮여 하얗게 된 낮은 언덕의 웅한 풍경의 단조로움을 깨뜨릴 나무 하나도 없었다. 모래사장이 있어야 할 물가에는 황량한 개펄이 불쾌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L.H. 언더우드 1999, 25쪽). 그녀가 조선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만난 자연은 ‘혈벗은 산과 더러운 강’이었고, 이를 통해 조선은 나무를 심거나 강물과 바다를 관리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착취한 나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조선의 ‘혈벗은 산과 더러운 강’은 19세기 후반의 세도정지기(1800-1863) 이후의 상황이었다. 임진왜란 등 큰 전란 직후를 제외하면, 조선은 정조 재위 3년인 1779년까지만 해도 도성에서 가까운 마을에 수목(樹木)이 울창하여 호랑이와 표범이 자주 출몰했다(정조실록 3년 3월 24일). 그런데 정조 사후 63년, 즉 순조시대부터 철종시대까지 안동김씨, 반남박씨, 풍양조씨 등 외척 세도가들이 권력을 독점적으로 장악해 “전원(田園)과 노복(臧獲)을 팔도의 전장에 두어 산과 바다를” 마구잡이로 개발했다(순조실록 12년 11월 7일). 백성들은 삼정의 문란과

민란의 도미노, 거듭되는 기근과 질병 속에서 자연을 보호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는 가운데 호랑이가 한밤중에 경복궁 근정전(勤政殿) 뜰에 들어오고(태종실록 5년 7월 25일) 여우가 종묘 담 안에 들어와서 울 정도로(세종실록 5년 8월 27일) 울창한 조선의 숲이 파괴되었다.

그러면 조선왕조는 어떻게 자연을 관리했는가? 기존 연구를 통해 밝혀졌듯이, 조선시대 환경 관련 부처는 공조·예조·병조, 그리고 한성부였다. 산천과 사회 기간 시설을 담당하는 공조에서는 산림과 연못[山澤·산택], 궁궐 내 건물[宮室·궁실], 성곽과 해자[城池·성지]를 관리했다. 예조에서는 주로 산천 제사를 주관했으며, 한성부와 병조에서는 환경파괴자 단속 및 나무심기 등을 맡았다(오승봉 외 1997, 62-63쪽).

실록을 보면, 조선시대 자연환경 보호는 두 측면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소극적 혹은 규제적 측면에서 볼 때, 조선시대 환경 관련 법규는 엄했다. 허락 없이 산림을 벌목한 자에게 장(杖) 90대를 때렸고, 관리를 맡은 산지기[山直]와 고을의 관리에게도 각각 장 80대와 60대를 때렸다(《경국대전》 ‘공전(工典)’ 재식(栽植)). 이 규정대로 매를 맞을 경우 화재를 낸 사람은 물론이고, 담당 공무원과 지자체장까지도 불구에 가까울 정도로 매를 맞아야 했다. 도성 주변의 자연환경 관리는 더 철저해서, ‘성저(城底) 10리’와 ‘4산(四山)’ 안에는 건축이나 매장(埋葬) 등에서 한성부의 심한 규제를 받았다.

적극적인 측면도 있었다. 나무를 심고 물길을 여는 등의 노력인데, 풍수지리 사상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남산에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는다든지 경복궁 서쪽에 우물을 판다든지, 청계천 준천 등 거의 모든 국왕들이 도성 환경 가꾸기에 힘을 기울였다(세종실록 15년 7월 21일 ; 태종실록 11년 1월 3일 ; 태종실록 11년 1월 7일 ; 세종실록 16년 4월 24일 ; 세종실록 29년 8월 10일 등).



이런 사실들을 통해 옛 선조들의 자연관과 환경보전 노력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발견이 ESG 실천을 눈앞에 두고 있는 기업과, 재앙에 가까운 자연 재해를 겪고 있는 인류에게 어떤 해법을 줄 수 있을까? “포진천물(暴殄天物),” 즉 하늘이 낸 만물을 함부로 다 써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경구도 물론 도움을 준다(《서경》 무성(武成)편). 환경관리가 주로 관(官) 주도로 이뤄졌던 조선왕조의 경우, 국가 기강이 느슨해진 세도정치기에 급속히 환경파괴가 이뤄졌다는 교훈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 교훈을 넘어서서, 과거에는 물론이고 지속 가능한 지구 생태계를 만드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사람들의 자연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 유교성리학자의 자연관

환경 민감성(eco-sensitivity) 측면에서 조선시대 사람들과 지금 사람들을 비교하면 어떨까? ‘환경 민감성’이란 숲과 강의 파괴, 공기 질 등 환경에 대한 인식 및 행동 대응 수준을 뜻한다. 특히 지진이나 홍수 및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지도층의 인식과 대응 측면을 환경 민감성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 측면에서 볼 때 현대인들은 결코 조선시대 사람들보다 낫다고 볼 수 없다. 오늘날 우리는 자연을 외경(畏敬)하기보다는 ‘근대적 인간’, 즉 진보의 이름으로 산업문명을 숭상하고 지구의 절대적 주인으로 군림하려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근대적 인간’은 데카르트로 대표되는 근대 사상가들에 의해 표상화된 인간형이다. 예컨대 데카르트는 마음과 몸을 ‘사유자(思惟者, res cogitans)와 연장자(延長者, res extensa)라는 두 개의 실체로 나눠 생각하는 한편, 사유자인 인간이 이성을 이용해 연장자인 자연을 탐구하고 정복하는 것을 당연시 했다. 우주를 거대한 기계로 간주한 데카르트는 자연을 인간에 의해 소유되고 지배될 수밖에 없는 생기 없는 집적체(集積體)라고 주장했다(정화열 1999, 181~187쪽). 여기서 낯선 서양 지

식인의 주장을 인용한 것은 우리들 대부분이 아직까지 ‘근대적 인간’ 내지 ‘근대 문명’의 틀 속에 머물러 있고, 그것이 환경 위기감을 둔하게 만든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대응되는 사상체계로서 유교성리학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유교성리학을 살피는 까닭은 ‘근대 문명’과 ‘유교 문명’ 중 어떤 것이 더 우월한가를 비교하려는 게 아니다. 그보다는 ‘근대 문명’과 대조되는 다른 문명을 살핌으로써 지금의 틀(frame)을 벗어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본 연구의 주된 대상인 세종시대 사람들의 ESG 인식의 바탕에 유교성리학<sup>6)</sup>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인간과 사회, 그리고 우주 생성과 변화에 대한 학습을 강조한 유교성리학자들은 자연과 하늘의 이치를 궁리했다. 주희는 『근사록』의 첫 장에서 우주의 본체를 설명했다. ‘복송오자’의 한 사람인 장재 역시 자연과 하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하늘은 나의 아버지요, 땅은 나의 어머니라. 온갖 미물이 다 그 안에 거한다. 우주를 이루는 것들이 내 몸이라 하면, 우주를 향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본성이다. 모든 사람은 나의 형제자매요, 모든 사물은 곧 나의 친구라.”(장재 2002, 125쪽)

여기서 보듯이, 성리학자들은 자연을 개발·개척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낳고 기른 부모요, 나와 본성이 같은 친구로 인식했다. 우주의 본성은 그 중 일부인 나의 본성과 상통한다고 보았다. 원시 유교의 텍스트인 『예기(禮記)』의 사상도 비슷하다. 이 책에서 공자는 “적절치 않은 때에 나무 한 그루 베어내고, 짐승 한 마리 죽이는 것도 효에 위배된다.” 이처럼 유교성리학은 인간 존중의 사상이지만, 인간만을 존중하지는 않는다. 인간 이외의 존재와 사물까지 확장된다는 점에서 환경 민감성을 키운다.

6) 유교성리학은 중국 춘추시대 말기에 공자가 체계화하고 맹자가 계승한 사상체계(儒學, Confucianism)와, 송나라 때의 유학의 한 계통으로 성명(性命)과 이기(理氣)의 관계를 논한 유교철학(신유학, Neo-Confucianism)을 아울러서 일컫는다.

### 3. 세종의 자연관과 생태계 위기 해법

세종을 비롯한 조선시대 사람들의 자연관 역시 성리학자들의 그것과 비슷했다. 하늘과 땅은 음양과 오행의 이치대로 움직이며,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사람 역시 음양오행 이치를 어기지 말아야 하는데, 하늘이 만든 자연을 마구 써 버리려는[暴殄天物·포진천물] 행위는 재앙을 불러온다고 믿었다. 그런데 세종은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고 인간 본성을 자연 이치에서 찾았지만, 환경보전을 위한 인간의 역할까지 경시하지는 않았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인간은 삼라만상을 연결짓고 보살피는 존재였다. ‘훈민정음이 천지인 3재(才)로 이뤄지되, 사람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구절이 그 예다. “초성 중성 종성이 어울려 글자를 드러내는데” “움직이는 것은 하늘이요, 머무는 것은 땅이다. 움직임과 멈춤을 겸한 것은 사람이다.” “초성은 움직여 피어나는 뜻이 있으니 하늘의 일이다. 중성은 정해져 멈추는 뜻이 있으니 땅의 일이다. 중성은 초성을 생기게 하고, 이어서 종성을 이루어지게 하여서 붙게 하니 사람의 일이다.”(교보문고 2015, 143-145쪽).

이 책에 따르면 “글자 소리의 핵심은 중성에 있는데” “천지가 만물을 낳고 이룩해도 쓸모있게 하고 서로를 돕는 것은 반드시 사람을 기다려 이뤄진대(待人而成·대인이성).” 말하자면 천지인 중 사람에 해당하는 중성이 있어야 온전한 글자가 이뤄지듯, 인간과 자연의 상생 역시 책임지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첫 번째 의미는 자연을 이용하는 중용의 태도이다. 세종시대 사람들은 지나침과 부족함 사이에서, 때를 가리고 [擇時·택시] 대상을 가려[擇物·택물] 취하고 이용하는 예로써[以禮·이례] 이용해야 한다는 믿었다.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백성들이 생존을

위해 연못을 포위해 물고기를 모조리[群·군] 잡고, 산과 들에서 동우리를 뒤엎어 새끼와 알까지 취하며, 짐승 뱃속의 태(胎)를 죽이거나 새끼를 잡을 경우 하늘이 경고한다고 믿었다. 그들은 가뭄이나 홍수 혹은 지진과 같은 재변을 위정자를 꾸짖는 신호라고 생각했다. 왕과 관리들은 곧장 긴장모드로 전환하고 사람들에게 그 해법을 구해야만 했다[求言·구언].

두 번째 의미는 자연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탐구 자세이다. 세종시대 사람들은 자연을 외경(畏敬)하되 사람의 일을 다 해야 한다고 보았다. 자연을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되, 거기서 더 나아가 자연의 원리를 탐구하고 도전해야 한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다. 세종은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농법을 모으고 실험해서 《농사직설》이라는 첨단 농업서를 편찬·보급했다. '농사직설 서문'에 따르면, 세종은 '곡식을 심고 가꾸는 방법이 풍토에 따라 다르다'면서 전국의 관찰사에게 '지방의 숙련된 농부(老農)를 찾아가 물어보되<sup>7)</sup>, 농토에서 실험해 본 후 그 결과를 보고하라<sup>8)</sup>'고 지시했다(세종실록 11년 5월 16일). 1433년 간행된 『향약집성방』 역시 '집대성 이후 실험'이라는 절차를 거쳤다(세종실록 15년 6월 11일). 자연 그 자체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두려운 것이지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해야 한다는 게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었다.

세종은 무소불통(無所不通), 즉 자연의 원리를 깨닫기 위해서 통하지 않음이 없어야 한다는 자세로 학습에 몰입했다. 세종이 역사적으로 훌륭한 지도자들을 보면 "통하지 않음이 없었다[無所不通·무소불통]"면서, 천문지리까지도 모르는 게 없이 끝까지 파헤쳐서 그 이치를 발견해서 [天文地理 靡不究致·천문지리 미불구치]."(세종실록 15년 7월 7일) 국가 경영에 활용할 때가 그렇다. 가령 태종 헌릉 옆길을 풍수지리 차원에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세종은 이 문제를 경연에서 다뤄보자며

7) [遼訪州縣老農·세방주현노농]

8) [因地已試之驗具聞·인지이시지험구문]

제안했다. 《지리전서(地理全書)》라는 풍수지리 책을 어전회의에서 “매일 그 이치를 강론”[日講其理·일강기리]하자고 했다(세종실록 15년 7월 7일).

이처럼 세종은 유교 이외의 사상에 대해서도 “투철하게(洞)” “그 근원을 캐어본”[究源·구원] 다음에 “나라에 이롭고”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실용적인 차원에서 이용하려 했다(세종실록 15년 7월 7일). 세종 때 훈민정음 해례 편찬에 참여한 ‘훈민정음 8학사’의 한 명인 강희안(姜希顔, 1418 ~ 1464)은 『양화소록(養花小錄)』에서 꽃과 나무의 원리를 깨닫고 재배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꽃 가꾸는 일을 국가경영에 비추어 서술했다(오반죽, 굴나무, 서향화). 세종을 기쁘게 했던 일본 철쭉 이야기며(강희안 2009, 107-8쪽), 선비들이 글 읽는 책상 위에 두었던 석창포 이야기(117-123쪽), 그리고 단군 때부터 우리나라에 나고 자랐다는 무궁화 이야기(164-165쪽)도 흥미롭다.

강희안의 책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그의 양생법(養生法)이다. 그에 따르면 ‘화초 하나하나의 성질을 파악하여 그 본성에 따라 맞추어 키우면 잎이 탐스럽고 꽃도 활짝 피어서 제 모습을 드러낸다.’ 우주 원리를 공부해서 파악하고 그 원리에 따르면 꽃과 나무는 물론이고 나의 삶과 국가경영도 순리대로 잘 되어 간다는 게 그의 양생(養生)하는 법이었다. 강희안에 따르면 “천지간에 가득한 만물들은 저마다 현묘한 이치를 갖추고 있는데, 그 이치를 연구하지 않고는 알 길이 없다.” 천지 만물이 지닌 이치를 생각하여 그 근원까지 파고 들어가서, 두루 미치는 지식을 꿰뚫으면 사람의 마음이 만물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 한마디로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라 할지라도 그 이치를 탐구하는[究其理] 자세는 곧 뜻을 성실히 하고[意誠], 지극한 앎에 이르며[知至], 몸을 닦는[身修] 태도와 일치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141-143쪽). 자연의 원리를 더욱 “투철하게” “그 근원을 캐어내서” 자연도 보존하면서 사람에게도 도움되는 해법을 줄기차게 찾아야 한다는 세종의 생각과 일치한다.

## IV. 유교 지식인의 사회공헌 방법으로서 지방 교육

### 1. '거대한 학교 국가' 조선

사람의 역할을 중시한 유교성리학자들이 교육을 강조한 것은 당연했다. 『논어』의 첫 구절이 “배우고 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로 시작되는 것에서 보듯이, 그들은 인류 역사상 어떤 문명보다도 배움을 강조했다. 주희 등이 편찬한 성리학 해설서인 『근사록』 역시 치인(治人)편의 일부(8, 9, 10권)를 제외하면 배움과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인간과 나라와 우주를 관통하는 성인(聖人)이 되기 위해서는 배움과 교육의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았다. 성리학자 주희가 편찬한 『근사록』의 치체(治體)편은 “천하를 다스리는 데는 근본이 있다”면서 “마음을 정성되게 하는 것(誠心)”이 그 근본의 실마리라고 말했다. 정성된 마음으로 임금 노릇을 하면 요순처럼 정치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리학자들이 세운 조선왕조에서 지도자의 마음공부를 위한 학습은 매우 중시되었다. 국왕과 신료 등 위정자는 물론이고 관리가 되려고 공부하는 유생 및 일반 백성까지도 배움을 중요하게 여겼다. 재상과 연관은 국왕이 참석하는 경연(經筵) 등에서 “치도(治道)와 정학(正學)을 강론하고”(성종실록 10년 4월 19일 ; 단종실록 1년 1월 7일) 국왕의 “덕성을 훈도(薰陶)”하도록 만들었다(중종실록 12년 10월 8일, 선조수정실록 8년 4월 1일, 숙종실록 15년 7월 6일, 20년 7월 25일). 높은 자리에 갈수록 인욕(人慾)을 버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며, “임금의 그른 마음을 바로잡아 (...) 임금을 바르게 하면 나라가 안정”될 수 있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다.<sup>9)</sup>

조선 건국자들은 '거대한 학교 국가'를 구상했다. 그들은 '경명행수지사(經明行修之士)'를 기르기 위해 서울에는 국학(國學)과 지방에는 향교

9) 정도전, 『삼봉집』 권10, 「경제문감下」 간관.

(鄕校)에 생도(生徒)를 더 두고 강학(講學)을 힘쓰게 했다. 국학인 성균관 외에도 네 군데의 국립대학을 두어 인재를 양육하게 했다. 학교에서는 경의(經義)에 밝고 덕행을 닦은 사람을 스승으로 뽑아 사서(四書)로부터 오경(五經)과 《통감(通鑑)》을 가르치게 했다(태조실록 1년 7월 28일).

유교성리학자들의 국가구상에서 특징적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지역 자치성의 추구이다(윤인숙 2016, 13쪽). 지역 자치성은 송나라 주희를 비롯해 조선의 세종과 이이, 조광조 등이 중시했다. 그들은 향약과 서원과 사창 등 지역 내 자율적인 조직을 통해서 문화와 경제적 자립을 확립하려 했다. 가령 주희는 북송 말기 중국 심서성의 여씨 형제들이 지역에서 실시했던 네 가지 향약 강목 -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이라는 4대 강목 -을 보완하여 『주자증손 여씨향약』을 만들었다. 이는 이후 유교성리학자들이 향촌 질서를 만드는 모델이 되었다.

## 2. 지역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 자치성 추구

우리나라에는 송나라의 「여씨향약」과는 별개로 지역공동체의 상규상조(相規相助) 전통이 있었다. 고려의 사심관(事審官)과 유향소(留鄕所) 제도가 그것이다. 이 중에서 유향소는 고려말 지방의 나쁜 하급관리(元惡鄕吏)가 일반 백성을 수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만든 제도였다. 조선왕조는 유향소를 계승하여 각 지방에 유향소를 두어 향촌질서 유지에 기여하도록 했다.

유향소는 태종 때 없어졌다가 성종에 의해서 다시 설치되었는데(성종실록 13년 1월 22일), 대체로 국왕 중심적 국가운영을 추구하는 왕과 신하들은 유향소 폐지를, 군신공치를 내세우는 왕과 신료들은 그 활용을 강조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1506년 중종반정으로 집권한 군신공

치 중시 신료들은 유향소의 부진을 만회하고, 지역 차원에서 성리학 규범을 실천하기 위해 향약을 강조했다. 그들은 국왕에게 향약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고(1515년 김인범), 실제로 지방관으로서 실천하기도 했다(1517년 김안국).

세종과 그 시대 사람들 역시 지방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공동체 문화를 진작시키는 데 힘을 기울였다. 수령 칠사(七事), 즉 수령이 부임해서 추구해야 할 7가지 목표 중 하나가 '학교 진흥[學校興]'로 중시되었다(세종실록 7년 11월 14일; 18년 5월 12일). 세종은 지방 학교 발전을 위해 교사인 학장(學長)에게 월급을 주게 하고, 감사와 수령이 돈독히 권면(勸勉)하게 하였다(세종실록 11년 1월 3일, 11년 5월 1일). 지방의 향교 생도(生徒)들에게 중국어·일본어·몽고어 등을 배워 통역관으로 활동하게 하거나(세종실록 12년 8월 29일), 중앙의 하급관리로 채용하게 하였다. 중국에서 책을 구입해서 지방 향교에 배포하게 하는가 하면(세종실록 7년 5월 25일) 『소학(小學)』 등 책을 내려주기도 했다(세종실록 17년 9월 21일; 17년 10월 25일; 23년 10월 18일 등). 그뿐만 아니라 향교 생도(生徒) 공부량을 수령이 분간해 과거에 응시하도록 도와주고, 성적이 우수한 자는 임용하게 했다(세종실록 26년 2월 4일; 5년 12월 16일). 개인 집에 학교(서당)를 열어서 지역의 아동들을 가르친 경상도 박호생 등을 특별히 포상하기도 했다(세종실록 18년 10월 8일).

세종이 보기에 향교는 지방 젊은 인재를 기르는 학교이자 지역 단위의 문화행사가 치러지는 거점이었다. 향교를 중심으로 향음주례(鄉飲酒禮) 베풀어서 친목(親睦)을 도모한 일이나, 재위 19년 짜인 1437년 7월 각 고을 학교에 학령(學令)을 세운 일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세종실록 오례 가례 의식; 세종실록 19년 7월 10일). 후자, 즉 학령(學令) 수립과 관련하여 성균 주부 송을개는 배우는 자로 하여금 학문하는 방법(爲學之方·위학지방)을 알고, 권선징악 풍토(彰善癉惡之風·창선단악지풍)를 이루게 하려면, 향교에 선부(善簿)와 벌부(罰簿) 두 장



부를 따로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여러 생도 중에서 경서에 밝고 행실을 닦아, 효성 있고, 우애하고, 친척간에 화목하고, 남을 도와주는 행실이 있어” 두드러진 자는 선부에 기록해야 한다. 반면 “경학에는 힘쓰지 않고 오로지 허탄(虛誕)·망령(妄靈)한 것만 일삼고, 불효하고 불목(不睦)한 따위의 행동이 한 고을에 소문이 퍼져서 풍화를 상하게 하는 자가 있으면 별부에 기록”해야 한다. 향교 책임자가 수령과 함께 기록을 담당하되 매년 연말에 가서 관찰사와 조정에 보고하게 하자는 게 송을개의 제안이었다. 세종은 의정부 검토를 거쳐 그 제안을 채택했다(세종실록 19년 7월 10일).

농민을 포함해 공부하고자 하는 백성은 누구라도 향교에 입학할 수 있게 한 것도 그 시대의 특징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책을 간행할 때 고을 사람 중에서 자원자(自願者)를 모집한 일이다(세종실록 17년 10월 25일). 향교를 짓거나 수리하기 위해 고을 백성들이 자원해서 원납전(願納錢)을 내 기금을 마련하게 했다. 이 일은 그 당시 사람들이 ‘삶의 질’ 기준의 하나였던 ‘덕 베풀기[攸好德·유호덕]’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덕 베풀기[攸好德]’는 『서경(書經)』 홍범(洪範)에 나와 있는 “오복(五福)”의 하나다. 잘 알려져 있듯이, 오복은 ① 오래 사는 것[壽·수]과, ② 부유하게 사는 것[富·부]과, ③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것[康寧·강녕]과,<sup>10)</sup> ④ 덕 베풀기를 좋아하는 것[攸好德·유호덕]과, ⑤ 소명을 마치고 죽는 것[考終命·고종명]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서 유교 사회에서 사람들은 부유하고 편안한 가운데 건강하게 오랫동안 선을 베풀며 살다가 자기 소명을 다하고 편안히 죽는 것을 이상적인 삶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세종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쓴 제문(祭文)이나 헌사(獻辭), 그리고 인명(人名) 등에 “오복”이란

10) 정도전(鄭道傳)은 경복궁의 침전(寢殿)에 강녕전(康寧殿)이란 이름을 붙이면서 그 뜻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즉 강녕이란 오복의 하나이면서 “그 중간을 들어서 그 남은 것을 다 차지하는 것[舉其中以該其餘也]”(태조실록 4년 10월 7일)이다. 강녕하지 않은 삶, 즉 질병(몸)과 우환(마음)에 시달리는 삶은 제 아무리 오래살고 부유하며 덕을 베풀며 제 명에 죽는다 해도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말이 되겠다.

말이 자주 쓰인 것을 통해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세종실록 5년 1월 22일; 9년 3월 4일; 9년 3월 29일; 18년 7월 22일 등).

이중에서 ‘덕 베풀기’는 ESG 경영 차원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덕 베풀기’는 오늘날은 물론이고 전통시대 사람들이 부리기에 적절한 복이었다. 가령 “사방 100리 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가훈에 따라 일년 수입의 1/3을 주변 빈민구제에 힘쓴 경주 최부자집의 노블레스 오블리제는 대표적인 ‘덕 베풀기’ 사례다(조영현 2002, 40~71쪽). 세종 역시 ‘덕 베풀기’를 실천했다.

재위 18년 째인 1436년 병진년 대기문은 매우 심각한 위기였다. ‘병진 대기근’ 여파로 그 다음 해인 1437년까지도 ‘부모가 어린 아이를 나무에 매어놓고 도망가야’ 할 정도였다. 기근이 심각한 상태에서(세종실록 19년 1월 14일), 전염병까지 치성해서(세종실록 19년 2월 4일) 비상시를 대비해 비축해둔 군량미까지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세종은 자격 없는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하늘의 꾸지람을 받고 있다면서 부끄러워 낯을 들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하늘의 운수는 비록 그렇더라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자”면서 왕의 아들과 손자의 연봉을 크게 줄이라고 명했다. 이후로 대군의 연봉 상한선을 정하고 법제화하라고 지시했다(세종실록 19년 1월 12일).

세종을 비롯한 조선시대 사람들이 중시한 ‘덕 베풀기’는 ESG 경영 중에서 사회적 책임(S) 분야에 해당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차원에서 일찍부터 이 분야를 담당해 왔다. 나라에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혹은 사회적 소외계층을 돕는 일에 가장 앞장 선 것은 정치인이나 관리가 아니라 기업이었다. 중요한 것은 성과를 거두는 “상생”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세종이 대기근 때 관리가 아닌 굶주린 백성 입장에서 구휼을 베푸는 것처럼, 수요자의 입장에 선 맞춤형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수

재의연금 방식의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을 키우는 복지 후원이어야 한다.

미국의 정치철학자 왈쩌(M. Walzer)는 개인적으로 하는 자선은 자칫 “해로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후원금으로 외부적 명성을 사고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다는 점과(후원자), “구걸을 연기(演技)하고” 그 과정에서 자존감이 손상되는 수혜자의 피해가 그렇다. 왈쩌에 따르면 이런 ‘해로운 도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그를 통해 일자리를 얻게 하는 길이다(왈쩌 M. 1999, 166-167쪽). 세종이 지방 향교에 책을 내려보내고 교사에게 월급을 주게 하며, 젊은 인재를 가르쳐서 등용하게 했던 지역 상생 정책을 연상하게 하는 대목이다.

## V. 기록 전통의 확장 계승과 ESG 교육 프로그램

### 1. 은퇴세대를 위한 속기사 ESG 교육

세종의 ESG 경영 사례는 역사 속에 실제로 실천되었던 사례를 통해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되짚어 보게 하고, 앞으로 헤쳐 나갈 과제를 모색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의 ESG 운동이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과거에도 좋은 정치 방향이자 경영의 모델이었다는 인식을 갖게 해서 전담 조직 멤버뿐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진지하게 환경(E)과 사회적 책임(S)과 지배구조 투명경영(G)을 시대적 요청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 환경과 사회적 책임과 투명경영을 연결해서 생각하되, 특히 지배구조 투명성이 환경을 보전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관건이라는 점을 깨닫게 하는 장점이 있다.

은퇴세대 속기사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해온 일이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환경과 사회적 책임 이슈까지 확장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래 세대들에게 그러한 직업적 자부심을 전달하고, ESG에 대해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적인 교육전략에 따라서 콘텐츠와 교수법 등을 새롭게 개발해야 한다.<sup>11)</sup> 혁신적인 교육전략이란 종래의 학교 수업과 달라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학교교육의 운영방식은 한마디로 '정해진 수업시간에 교재내용을 교사가 전달하는 방식'이 대다수였다. 세종식 ESG 교육이 성공하려면 학습자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학생을 중심에 놓고 전반적인 교육환경의 관점에서 어떤 점을 개선해야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만 어느 정도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11) 차세대를 위한 ESG 교육 프로그램은 박현모 외, 2017. "세종리더십 교육방안: 중학생의 인성 함양을 위한 세종식 인성교육 디자인." 국회의원 이정현 의원실 보고서를 ESG 교육에 맞게 수정한 것임.

첫째, 콘텐츠와 교수법이다. 먼저 콘텐츠는 본 연구에서 발굴한 세종의 ESG 경영 사례를 ESG 마인드와 실행방식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

구분	주 제	관련 인물
환경존중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왕조의 자연환경 관리</li> <li>- 세종의 자연관과 강희안의 양생법</li> <li>- 어효첨의 청계천 준천 반대와 유교 합리주의</li> </ul>	강희안 어효첨
사회적 책임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대한 학교 국가' 조선</li> <li>- 세종시대 사람들의 '삶의 질'</li> <li>- '덕 베풀기'와 노블레스 오블리제 실천 사례</li> </ul>	세종
지배구조 투명성 (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왕조 장기지속성 요인</li> <li>- 공문정치를 뒷받침한 사관(史官)제도</li> <li>- 세종이 정립한 '실록 전통'</li> </ul>	민인생

다음으로 질문과 스토리텔링 교육법이다. ESG 마인드 형성을 위해서는 질문을 통해 듣는 사람의 창의력을 자극하는 학습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세종은 대체로 찬반 의견을 묻는 단순질문보다는 생각하고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게 하는 질문을 자주 던졌습니다. 가령 1433년 5월 파저강토벌의 승전보고를 들은 직후 세종은 “어떻게 하면 이 공을 보전하고 후환을 없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승리에 기뻐 방심하지 말고 그 이후에 발생할 문제점을 생각하고 대비해서, 그 승리가 영토 확장이라는 더 큰 성과로 이어지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는 얘기였다.

즉위 초반 “중국역법 책에 나온 그 시간에 왜 일식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물은 것도 마찬가지였다. 왜 우리나라의 일식이 중국 책에 나온 시간에 일어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 많은 인재들로 하여금 연구와 숙려를 거듭하게 했고, 그것이 『칠정산』이라는 우리의 역법과

시간을 찾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종의 대화에서 특징적인 것은 중요한 의견을 놓치지 않는 섬세한 해아림이다. 아무리 질문을 하고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다 하더라도 좋은 의견을 흘려버린다면 한갓 잡답에 불과하다. 하지만 인재들의 속마음, 즉 그들이 가치 있게 여기고 잘 할 수 있다고 여겨 제안하는 것을 세종은 놓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실록 전통 세우기’의 한 예이기도 한 실록 분산 보관 방법 논의 때가 그랬다. 재위 21년째인 1439년 6월 사헌부에서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역사기록[史籍]을 분산 배치시키자고 제안했다.

사헌부 관리는 중국의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를 지은 다음 “명산(名山)에 간직하고 부분(副本)은 서울에 둔다” 말했음을 인용하면서, 충주 사고(史庫)의 실록 등을 “몇 본(本) 더 만들어서 각도 명산에 나누어 간직하고, 해마다 돌려가면서 포쇄(曝曬)하여 불우(不虞)에 대비하게 하소서”라고 제안했다(세종실록 21년 6월 26일). 이 때 사헌부가 올린 9개의 제안 중 세종은 유일하게 실록 등을 분산 보관하자는 의견만 채택했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뒤에 역사 기록과 보관을 담당할 춘추관에서 구체적으로 왕에게 보고했고, 27년째인 1445년 한양 춘추관, 충주, 전주, 성주(星州)의 네 곳 사고(史庫)에 분산 보관케 했다(세종실록 27년 11월 21일). 사헌부와 춘추관의 제안을 세종은 모두 받아들였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조선왕조실록》은 《승정원일기》처럼 임진왜란 때 불타고 말았을 것이다.

세종의 인재교육 방법인 스토리텔링, 즉 ‘이야기 들려주기’를 통한 사람들의 생각 바꾸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세종은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는 데 이야기 들려주기가 효과적이라는 생각했다. “무릇 세자를 교양하는 방법은, 반드시 훌륭한 사람을 가까이하고[近], 아름다운 일을 들려주는 데[聞] 있다. 그것은 마치 초나라에서 성장하면 초나라 말을 하

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세종의 말이 그 근거이다. 세종이 『삼강행실도』를 편찬해서 효자 충신 열녀의 사례 105개를 백성들로 하여금 읽고 외게 하려 한 것도 ‘이야기 들려주기’ 교육법이다.

세종 ESG 콘텐츠와 교수법 프로그램을 이수한 은퇴한 속기사에게는 ‘세종 ESG 마스터’ 자격증을 부여해서 초·중·고등학생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해야 한다. ‘세종 ESG 마스터’는 세종실록 속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연-인간 상생 비결을 생활에 접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가여야 한다. 세종 ESG 교육은 단순한 일회성 교과목이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에 적용되는 원리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존 교육과 다르게, 부모도 세종 ESG 마스터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워크숍이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사와 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학생들에게 세종 ESG 교육의 의미와 차별성이 살아날 것이다.

세종 ESG 마스터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살필 수 있다. 그 첫째는 세종실록 속 ESG 지혜를 학교현장과 가정에 접목해서 실천하는 방안을 탐구하는 일이다(연구자 역할). 그 둘째는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속기 역사를 세종이 실천한 지배구조 투명 경영 차원에서 알리는 일이다(교사 역할). 그 셋째는 차세대를 위한 세종 ESG 프로그램의 리더로서 현장 체험과 학습을 이끄는 역할이다(코치 역할).

## 2. 차세대를 위한 ESG 교육

세종 ESG 교육은 인식의 전환과 함께 실천이 뒤따라야 하는 영역이다. 지금 이대로 ‘근대적 인간’의 삶을 계속해 나가면 ‘우리 공동의 미래’가 없을 수 있다는 심각한 위기감에서 ESG 교육은 출발한다.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로 하여금 인간과 자연이, 사회적 강자와 약자가 더 붙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깨닫는 경험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

서는 '농촌유학 프로그램'과 같은 전인적인 체험 수업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머리에만 머무는 지식수업이 아니라 친구들과 더불어 자연을 탐구하고 노는 체험을 청소년 시절에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의 실천이야말로 ESG의 처음과 끝이라는 점을 깨달을 수 있다.

이 점에서 세종실록에 기록된 ESG 사례는 매우 유용하다. 세종은 자기 스스로 ESG 경영을 실천한 군주였다. 그는 국가 용도에 필요한 나무와 식물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를 살피기 위해 직접 씨앗을 뿌리고 가꿨으며(세종실록 19년 9월 8일) 남산과 인왕산 등에 잣나무나 상수리 나무 등을 심게 했다(세종실록 16년 4월 24일). 1433년에는 청파역(靑坡驛)에서부터 남산에까지 여러 산봉우리들에 “소나무를 심어 가꿔서 무성하게 우거지도록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세종실록 15년 7월 21일).

앞에서 살폈듯이, '병진대기근'으로 백성 구휼이 어려워지자 세종은 왕의 아들과 손자들의 연봉을 줄여서 국가재정에 보태도록 했다. ESG 경영 중에서 사회적 책임(S)에 해당하는 '덕 베풀기'를 실천한 것이다. 그는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평안하게 된다”라고 하여, 나무의 뿌리[根本]에 해당하는 백성들의 민생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다. 겉으로 보기에 나무, 가지, 꽃, 열매가 중요해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은 그 뿌리가 튼튼할 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 세종은 사회적 약자인 백성들의 '밥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무엇보다도 세종은 어전회의 내용을 사관은 물론 집현전 학사와 승정원 관리까지 모두 기록하게 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크게 높였다. 백성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어려움을 들었으며, 인재들과 열린 토론을 자주 하고 좋은 의견을 받아서 시행했다. 특히 그는 사초의 원본성을 확



보하고 기록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게 하는 '실록 전통'을 세웠다. 그 점이 바로 환경을 경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정 운영을 가능케 했다.

청소년들이 세종 ESG 마스터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 커리큘럼을 다시 짜야 한다. 수업을 설계할 때 ESG 지식을 전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실천하고 발표하는 시간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많이 아는 사람보다, 세종처럼 실천하는 사람이 이 수업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세종 ESG 실천사례 공모전을 개최하여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해외 동포 자녀들도 참여케 해서 해외한인 후속세대 교육에도 접목하게 하는 방안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잘 기획된 교사 세종연수가 필요하며, 대한속기협회와 각 지자체 교육청의 협업을 통해 사회 모든 분야의 프로들, 특히 속기사 출신의 은퇴인력들이 제2의 인생을 보람 있고 명예롭게 보낼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세종 ESG 마스터 양성과정은 선행세대와 후속세대가 세종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로에게 인격적 성장의 계기를 제공하는 연결고리가 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가장 실행 가능한 인성교육이 될 것이다.

차세대를 위한 ESG 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3단계로 나누어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차년도** 청소년 맞춤형 세종 ESG 프로그램 개발 및 지도자 양성 (2023)

- 목표: 세종 ESG 교육 기반 마련
- 내용
  - 초등 및 중학과정 특화 콘텐츠 및 교수학습 가이드 개발
  - 교수자-학습자 니즈 기반 콘텐츠 개발

- 현장 적용 적합도 검증
- 세종 ESG 마스터 양성
- 세종 ESG 연수 프로그램
- 대상: 은퇴 속기사 및 교장/교감, 교과별/학년별 주임교사
- 기간: 최소 6개월(1개 학기)
- 목표: 학교 내 세종 ESG 발휘 방법 습득 + 세종 코칭 방법론 체득

### 2차년도 시범학교 운영을 통한 지도자 양성(2024)

- 목표: 시범운영을 통한 세종 ESG 교육 확산추진
- 내용
  - 대상: 은퇴 속기사 및 사회 각 분야에서 현직이거나 정년을 앞둔 실무& 리더십 경험보유자
  - 기간: 최소 6개월(1개 학기)
  - 세종 ESG 콘텐츠를 자신의 현실사회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과 결부시켜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코칭할 수 있는 능력 함양
  - 단기보다 장기과정(1년~3년), 정규 시간 안배(짧은 시간이라도 규칙적으로)
  - 교직원들의 참여와 협력 유도 중요
  - '학교 속 학교'를 표방하는 유사 운영사례(어썸스쿨<sup>12)</sup> 등) 벤치마킹

### 3차년도 전국 및 글로벌 확산 (2025)

- 목표 : 세종 ESG 실천사례 공모전 개최로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해외 동포 자녀들도 참여케 함
- 내용
  - 여주시와 여주대 세종리더십연구소에서 개최한 '세종리더십 실천

12) <http://awesome-school.net/>

사례 공모전'을 벤치마킹하여, 전국의 청소년들에게 '내가 실천한 세종 ESG'를 발표할 기회를 주고, 시상함.

- 해외 동포 자녀들도 참여케 해서 해외한인 후속세대 교육에도 접목하게 함.
- 글로벌인턴십으로 확대
- 전국 교사 대상 세종 ESG 워크숍 개최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함.

## VI. 결론

조선왕조는 500년 이상 장기 지속한, 역사상 몇 안 되는 국가이다. 체제의 건강성 내지 지배이념의 정당성 논란을 떠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조선시대 사람들은 환경과 사회적 책임과 지배구조 투명성을 서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들이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시키는 책임이 사람, 특히 지도자에게 있다고 믿었다. 세종이 '실록 전통'을 세워서 왕과 신료들로 하여금 투명하게 국정을 이끌어 가도록 만들고, 사회적 약자인 백성들의 삶을 돌보는 '민생 우선'의 정치를 강조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지배구조(Governance) 이슈는 ESG 경영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다. UN이 2015년 제70차 총회에서 설정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가지' 중에서 '깨끗한 물과 위생 환경의 개선' '깨끗한 에너지 자원의 개발' 등 5가지 환경(E) 이슈도 어려운 과제이고, '빈곤 종식'과 '기아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S) 역시 녹록지 않은 책임이다. 하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핵심으로 하는 지배구조(G) 이슈는 경영진의 일대 결단이 없으면 실행하기 매우 어려운 숙제이다.

세종 역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나라를 이끌어 가는 게 가장 어려웠다. 하늘을 비롯한 자연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원리를 더욱 "투철하게" "근원을 캐어내서" 환경도 보존하면서 사람에게도 도움되는 해법을 찾아내는 일은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니었다. 정책 결정을 내릴 때 환과고독(鰥寡孤獨)으로 표현되는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는 것도(세종실록 즉위년 11월 3일) 투철한 철학이 없으면 불가능했다. 게다가 향교(鄕校)라는 지방 젊은 인재를 기르는 학교이자 지역 단위의 문화행사가 치러지는 거점을 집중 지원해서 성과를 거두게 하는 일도 왕의 지속적인 관심이 없으면 중단되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 모든 일보다 더욱

어려운 것은 왕과 신하들의 언행 하나하나를 기록해 실록으로 만드는 일이었다.

태조가 『고려실록』의 사초(史草)를 보아서 안 된다는 사관 신개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꺼내어 확인한 사실이나(태조실록 7년 6월 12일), 태종이 궁궐 편전에 사관 민인생의 출입을 금지한 일에서 보듯이, 왕이나 재상처럼 특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사관은 “가까이하기 싫은[不近·불근]” 존재였다(정종실록 1년 1월 7일). 하지만 기록을 담당할 관리들은 ‘사관이 곧게 쓰지 않는다면 위에 하늘이 있다<sup>13)</sup>’고 하여 왕명보다 하늘이 내린 사명을 더 중시했다(태종실록 1년 4월 29일).

사관의 사명 의식을 가진 이런 사람들 때문이라도 태종과 세종시대 군신들은 말하고 행동하는 데 삼가고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대화와 의논 과정, 그리고 외교와 국방 관련 사안까지 후대에 전해질 수 있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나라는 멸망시켜도 역사는 멸망시킬 수 없다<sup>14)</sup>”고 생각했다(세종실록 6년 8월 12일). 그들은 왕과 재상도 사라지고 조선이라는 나라까지도 사라질 수 있지만, 역사 기록은 영원히 남아서 읽히고 회자(膾炙)될 것이라고 믿고 “사실에 의거해 바르게 기록하는[據事直書·거사직서]” 전통을 남겼다.

속기사는 오늘날의 여러 직업 중에서 세종이 세운 ‘실록 전통’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직종이다. 특히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해왔다. 사관 제도가 시작된 삼국시대 이래로 속기사는 군신(君臣)의 언행을 바르고 충실하게 기록하여 후대로 하여금 평가하도록 했다. “사실에 의거해 직서한[擧事直書·거사직서] 다음 후세의 평가를 기다린다[傳信於後·전신어후]”는 기록정신이 곧 속기사의 소명인 것이다. 이러한 속기사의 역사와 직업 소명에 대해 속기협회 회원들이 깊이 체

13) [臣如不直 上有皇天 · 신여부직 상유황천]

14) [國可滅而史不可滅 · 국가멸이사불가멸]

득하고 자긍심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래세대인 초·중·고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속기와 기록관리의 역사를 널리 홍보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속기사'라는 직업에 흥미와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세종실록』을 비롯한 전통시대의 주요 기록들을 ESC 경영 관점뿐만 아니라 역사로서 읽고 토론할 수 있는 『차세대를 위한 실록학 교재』 및 강사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대한속기협회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거사직서[擧事直書]의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G) 외에, 지역 학교 방문 수업과 같은 사회 공헌(S) 및 환경사랑(E)을 교육하는 ESG 실천 단체로 도약하길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 1차 자료

『태조실록』, 『정종실록』, 『태종실록』, 『세종실록』, 『정조실록』, 『택리지』(이중환), 『경국대전』, 『삼봉집』(정도전), 『이정집(二程集)』, 『목은 선생 문집(牧隱先生文集)』(권근), 『훈민정음』, 『한국 속기 50년사』(대한속기협회)

### ■ 2차 자료

#### 1. 단행본

- 강희맹. 2009. 『양화소록』. 이병훈 번역. 을유문화사.
- 교보문고. 2015. 『훈민정음 해례본』. 김슬옹 해제, 교보문고.
- 김일권 외. 2018. 『한국적 자연학과 치생의 문화론』.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박현모 외. 2006. 『세종의 국가경영 연구』 지식산업사.
- 배현숙. 2002. 『조선실록 연구 서설』. 태일사.
- 베이컨 F. 2001. 『신기관』. 진석용 번역. 한길사.
- 언더우드 L.H. 1999. 『상투의 나라』. 신복룡 번역. 집문당.
- 오항녕. 2009. 『한국 사관제도 성립사』. 일지사.
- 오항녕. 2018a. 『실록이란 무엇인가』. 역사비평사.
- 오항녕. 2018b. 『후대가 판단케 하라: 조선실록의 수정과 개수』. 역사비평사.
- 왈찌 M. 1999. 『정의와 다원적 평등』. 정원섭 번역. 철학과현실사.
- 유순태 외. 1998. 『한국 속기 50년사』. 대한속기협회.
- 윤인숙. 2016. 『조선 전기 사림과 소학』 역비.
- 장재. 2002. 『정몽』. 장운주 번역. 책세상.
- 정도전. 2014. 『조선경국전』. 한영우 번역. 을재.
- 정화열. 1999. 『몸의 정치』. 박현모 번역. 민음사.

- 조영현. 2002. 『5백년 내력의 명문가 이야기』. 푸른역사.
- 주희 외. 2004. 『근사록』. 성원경 번역. 명문당.
- Palais, James B.. 1996. *Confucian Statecraft and Korean Institutions: Yu Hyongwon and the Late Choson Dynasty*. Seattle: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2. 학위논문

- 광신환. 1987. “주역과 자연과 인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 윤영길. 2022. “신림과 철학: 한국적 신림철학의 정립을 위한 연구.” 순천대학교 박사논문.
- 이만우. 1974. “이조시대의 임지(林地)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 이유직. 1988. “조선시대 궁원(宮苑)의 공간 특성에 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 이유직. 1997. “계성의 『원야(園冶)』 연구 : 원림조영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 주영국. 2022. “재난성 대형산불 대응체계 분석을 통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강원도 동해안 일대의 동시다발적 산불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소방방재학과 박사논문

## 3. 연구논문

- 강원 외. 2020. “비재무지표와 기업의 시장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ESG지표 개발에 사용되는 사건의 시장반응 분석.”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연세경영연구』 Vol.57 No.2
- 김이성. 2022. “ESG 경영을 위한 기업환경윤리의 의의와 실천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철학회, 『환경철학』 Vol.- No.33
- 두양 외. 2022. “동적역량이 혁신 및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중



- 국 중소기업의 ESG 경영과 빅데이터 활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무역연구원. 『무역연구』 Vol.18 No.4
- 민재형. 2014.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기업의 환경적, 사회적, 지배구조적 요인이 주가수익률 및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과학회 39 (39): 33-49
  - 박재현 외, 2022. “국내 ESG 연구동향 탐색: 2012~2021년 진행된 국내 학술연구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v.17 no.1
  - 박종일 외, 2021. “경영자 과신성향 및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ESG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Vol.39 No.1
  - 박현모, 2022. “속기와 기록의 역사적 고찰”. 『속기계』 58호. 한국속기협회.
  - 백길주 외, 2022. “기업의 ESG성과가 회계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컨설팅학회. 『경영컨설팅연구』 Vol.22 No.4
  - 변영조 · 우승한, 2022.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국내·외 연구동향.” 한국청정기술학회. 『청정기술』 Vol.28 No.2
  - 손호철 외, 2015. “환경·사회책임·거버넌스 통합지수(ESG)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경영경제』 Vol.48 No.2
  - 안수현, 2021. “ESG 경영관련 국내 법제 현황 분석과 향후 과제 : 21대 국회 상정법안을 소재로.”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Vol.20 No.2
  - 오승봉 외, 1997. “조선시대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3집 1호. 한국조경학회.
  - 오항녕, 2000. “조선초기 실록편찬체제의 변화에 관한 사학사(史學史)적 고찰”. 『한국사학사학보』 1집. 한국사학사학회.
  - 오항녕, 2008. “조선전기 기록관리 체계의 이해”. 『기록학연구』 17집.
  - 오항녕, 2010. “당대사 실록을 둘러싼 긴장, 규율, 그리고 지평 =

- 조선시대 당대사 편찬의 경험과 교훈”. 『역사학보』 205호. 역사학회.
- 오항녕. 2018. “조선 숙종대 실록(일기)의 수정 시도와 누설: 기억 투쟁과 좌절, 그리고 원칙”. 『한국사연구』 No.183. 한국사연구회.
  - 옥순종. 2021. 개성 인삼상인의 근대기업화와 ESG 경영이념. 『인삼문화』 Vol.3
  - 이정기 외. 2020. “‘지속가능경영’ 연구의 현황 및 발전방향: ESG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한국전략경영학회 2020 전략경영연구 Vol.23 No.2
  - 이지은 외. 2021. “CEO의 특성이 ESG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헌연구.” 한국윤리경영학회. 『윤리경영연구』 Vol.21 No.2
  - 장근배. 2022. “ESG에 대한 회계적 및 성격적 관점의 고찰”. 한국로고스경영학회. 『로고스경영연구』 제20권 제2호.
  - 장희익. 2021. “성리학은 ‘새 자연철학’을 담을 그릇이 될 수 있나?.” 『철학논고』 3집. 단국대학교 철학연구소.
  - 조계영. 2013. “조선시대 실록부록의 편찬과 보존: 『단종대왕실록부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62집.
  - 조계영. 2014. “조선후기 실록의 세초 기록물과 절차”. 『고문서연구』 Vol.44. 한국고문서학회.
  - 채웅석. 2022. “고려시대사 연구와 재이(災異) 사료의 활용”. 한국중세사학회. 『한국중세사연구』 71집.
  - 천상은 외. 2021. “HRM 관점의 ESG 평가 지표 비교분석 연구”.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인적자원관리연구』 Vol.28 No.5
  - 최영진. 2000. “『주역』에서 보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 『동양철학』 13집. 한국동양철학회.
  - 최창조. 1991. “한국 풍수사상의 역사와 지리학.” 『한국학』 14집 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 최창조. 2007. “한국 풍수사상의 자생적 특징.” 『정신과학』 12집.

공주대학교 동양학연구소.

- 황수덕 외. 2022. 공공기관 ESG 경영을 위한 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Vol.38 No.2.
- 황은진 외. 2022. “공공기관의 ESG와 조직성과: 기관장의 리더십과 헌신형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의 조절 효과.” 『사회적기업연구』. Vol.15 No.1
- James B. Palais. 1995. "A Search for Korean Uniqueness," *Harvard Journal of Asian Studies* 55-2(December, 1995), pp.424-25.

#### 4. 보고서

- 이원희 외. 2009. “환경규제의 역사적 흐름 고찰 및 합리적 개선 방안 연구”. 『환경부 정책브리핑』 한국행정학회 보고서.
- 박현모 외. 2017. “세종리더십 교육방안: 중학생의 인성함양을 위한 세종식 인성교육 디자인.” 국회의원 이정현 의원실 보고서

부록 : 실록에 있는 ESG 관련 기사



## 1. 지배구조 투명성 관련 읽을거리

### 1. 실록의 연원(淵源)과 의미

“그 섭렵한 바가 아주 넓고 경전을 꿰뚫었으며 고금(古今)을 내리 치달려 수천 년 사이를 오르내렸으니 이 점은 부지런했다고 하겠다. 또 그 옳고 그름을 가리는 바가 자못 빼어난 이(聖人-공자)와 어긋나서 큰 도리를 논할 때는 황로(黃老)를 앞세우고 육경(六經)을 뒤로 두었으며 유협(游俠)을 쓰면서는 (유학의) 처사(處士)를 물리치고 간웅(姦雄)을 올렸으며 화식(貨殖)을 서술할 때는 세력과 이익을 높이고 가난과 천함을 부끄럽게 여겼으니 이는 그 책의 병폐다.

그러나 유향(劉向)과 양웅(揚雄)은 둘 다 여러 책들을 폭넓게 본 사람인데, 두 사람 모두 사마천은 훌륭한 사관의 재주를 갖고 있다고 칭찬한 이래 그가 일의 이치를 잘 정리해 일을 잘 분별하면서도 겉치레에 치우치지 않았고 질박하면서도 속되지 않아 그 글이 곧고 그 (서술한) 일은 사실에 충실해 헛되이 미화하지도 않고 잘못을 숨기지도 않았으니 이를 일러 실록(實錄)이라 한다는 평가가 자리잡았다.

야! 사마천과 같이 일을 널리 배우고 폭넓게 들은 인물도 지혜로써 자기 한 몸을 보전할 수가 없어 이미 극형에 빠져 구렁텅이에 굴러 떨어졌으나 분발해 글을 지었으니 그 글은 진실로 믿을 만하다.”

이한우 옮김, 『한서』 사마천전

[해제] 조선왕조실록을 이해하려면 실록을 기록하고 편찬한 사람들의 자세를 알아야 한다. 실록(實錄)이라는 용어의 연원(淵源)은 『한서(漢書)』 62, 사마천전(司馬遷傳)에 있다. 위에 인용한 사마천에 대한 반고의 평가를 보면 “그 글은 곧았고, 적은 사실은 상세하였으며, 아름다움

을 꾸미지 않았고, 악한 것은 숨기지 않았으므로, 그것을 일러 실록이라 하였다[其文直 其事該 不虛美 不隱惡 故謂之實錄].”라고 되어 있다. 과장하거나(꾸미거나) 숨기지 않으면서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곧 실록이라는 말이다. 조선왕조를 비롯해 중국의 여러 왕조들의 권력자들에게 실록 내지 역사 기록은 국왕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서양의 GOD와 같은 역할을 했다. ‘현재, 여기’를 넘어선 ‘미래의 그 어느 누구’에 의해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열린 역사’였다.

## 2. 조선왕조실록 편찬 논란 - 곧은 글[文直]과 상세한 기록[事該],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

[임신년(1392년)부터 경진년(1400년 정종2년)까지의 사초를 빨리 수납하라는 왕명이 있었다.]

- **춘추관 신하** : “예전 사기(史記)를 보건대 모두 3대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전조(前朝) 때에 있어서도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태조실록》을 어찌 오늘날에 편수할 수 있습니까?”
- **하륜** : (얼굴을 붉히며) “태조의 일을 어느 한 시대의 사관(史官)이 어떻게 다 갖추 기록하였겠소? 족히 사실로 삼을 수 없소! 마땅히 노성한 신하가 죽지 않았을 때에 본말을 갖추 기록하여 실록을 만들어야 하오. 이것이 마땅히 할 일이오. 지금 대간의 신하들이 사람의 과실(過失)을 말하는 것도 꺼리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서법(書法)으로 사람을 포폄(褒貶)하는 것이겠는가? 예전 사람이 문헌(文獻)이라고 말하는데 문(文)은 사기(史記)이고, 헌(獻)은 노성(老成)한 사람을 말함이오. 나는 불가함을 알지 못하겠소.”

- 태종실록 9년 8월 28일

[해제] 조선왕조실록은 언제 편찬되기 시작했을까? 『태종실록』 9년 8월 28일 기사에 나와 있다. 태조가 사망한 지(1408.5.24) 3개월 가량

지난 시점이다. “임신년(1392년)부터 경진년(1400년 정종2년)까지의 사초를 빨리 수납하라”는 왕명이 보인다. 그런데 이 왕명이 내려지기 전에 『태조실록』 편찬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태조실록』을 지금 편찬해야 하는지 아니면 나중에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춘추관의 사관 우승범은 3대(代)가 지난 뒤에, 즉 할아버지 - 아들 - 손자처럼 세대(祖宗子孫 相繼·조종자손 상계)가 세 번 바뀐 뒤에야 객관적인 역사편찬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춘추관 기사관(記事官) 송포 역시 요순시대에는 왕조가 바뀐 뒤 후인(後人)의 손에서 역사가 기록되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지금 신하들이 모두 태조 때의 구신(舊臣)들인데, 태조의 신하로서 태조의 역사를 편찬하면, 후세 사람들이 믿을 만한 글이 아니라고 할 것”이었다(태종실록 9년 9월 1일).

이에 대해 하륜은 특정 시대의 사관(史官)이 역사적 사실을 다 기록할 수 없다면서 “노성한 신하가 죽지 않았을 때에 본말을 갖추 기록하여 실록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한 기록을 염려하나 지금 언관들은 사람들의 잘잘못을 꺼리지 않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을 지켜본 태종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요(堯)의 일을 우(虞)나라 사관(史官)이 편수하였고, 순(舜)의 일을 하(夏)나라 사관이 편수한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한나라·위나라 이후에 이르러서는 그렇지 않았다. 또 공자(孔子)가 『춘추(春秋)』를 찬수(撰修)한 것이 정공(定公)·애공(哀公)의 세상에 있었던 일인데, 정공·애공 때의 일을 아울러 썼다. 이것으로 본다면, (그 당대에) 실록을 편수하는 것은 의심할 것이 없다.” 하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태종실록 9년 9월 1일).

전체적으로 볼 때, 태종은 다른 사람에 의해 평가되기보다는 스스로 평가하고 역사에 기록을 남기려고 했다. 그런 생각은 『태조실록』 편찬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위에서 보듯이 신하들의 끈질긴 반대를 물리치고 마침내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켰다. 태종은 일찍부터 역사 기록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듯하다. 역사가 승자에 의해 기록되는 것인 만큼 현실의 권력쟁탈에서 승리하여 ‘스스로 변명’하도록 하겠다는 게 이방원의 생각이었다. ‘국정교과서 편찬’ 논란에서 보듯이, 이 문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 3. 세종이 정립한 ‘실록 전통’1 - 충실하고 상세하게[該·해] 기록하라

[경연에 나아갔다.]

- 세종 : “내가 《통감강목》[綱目]을 보니, 옛날 기사(記事)는 어찌 그와 같이 자세하며 구비하였는가. 《고려사》[麗史]를 보면 너무나 소략하다. 지금 오직 사관(史官) 한 사람이 다만 조계(朝啓)할 때에 들어가며 참석하여 일을 기록하니, 국가의 일을 어찌 다 알아서 기재하겠는가. 국가의 일을 다 아는 자는 오직 승지[代言司]일 뿐이다.”
- 좌대언(左代言) 곽존중 : “신들은 사무가 번잡하여 일을 기록할 겨를이 없습니다.”
- 세종 : “집현전(集賢殿) 관원이 항상 길내에서 벼슬하니, 또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으리라.”

[바로 신장(申穡)·김상직(金尙直)·어변갑(魚變甲)·정인지(鄭麟趾)·유상지(兪尙智)를 명하여 모두 춘추(春秋)를 겸직시켰다.]

- 세종실록 5년 6월 24일

[해제] 세종실록이 『태조실록』(국역본으로 587쪽)이나 『정종실록』(국역본으로 202쪽), 그리고 『태종실록』(국역본으로 3,217쪽)보다 『세종실록』이 월등히 분량이 많은(국역본으로 10,800쪽) 이유는 세종시대 들어서 다양한 기록 체제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충실하고 상세한[該·해] 국정 기록을 위해서 세종이 취한 조치는 위의 인용문, 즉 집현전 학사에 계도 기록 역할을 담당하게 한 것 외에도 세 가지가 더 있다.

[1] 처음으로 병조 참의 지사(知事)로써 춘추관 편수관(春秋館編修官)을 겸하게 하였다는 『세종실록』 즉위년 10월 16일의 기록이 그 하나이다.

[2] “종학(宗學)을 겸임한 관원에게 겸춘추(兼春秋) 2품 이상 1인과 3품 이하 1인으로 이를 겸하게 하고, 10년에 한 번 선원록(璿源錄)을 닦고, 3년마다 계속 종실의 보첩(譜牒)을 등사해 올리도록”한 이조(吏曹)의 제안(啓)을 채택한 것[從之]이 그 둘째이다(세종실록 10년 10월 24일).

[3] 세종 재위 16년 짜인 1434년 춘추관에서 왕명을 받들어 기사(記事)를 넓힐 구체적인 조목을 의논하여 아뢴 것[啓]은 충실하고 상세한 [該·해] 국정 기록을 위한 결정판이다(세종실록 16년 11월 5일). 이 ‘조목’에서 세종은 첫째, 사헌부·의금부·예조 등 법과 풍속을 담당한 관리는 물론이고(①), 둘째, 어전회의 등 주요 국정 토론장에 배석하는 승지와 사간원 관리, 의정부 사인과 서연을 담당한 관리[書筵官](②), 셋째, 예문관 직제학과 직관(直館) 두 관원으로 하여금 춘추관으로 출근해서 크고 작은 모든 관청에서 보고하는 문서를 점검(點檢)하고, 연월의 순서대로 편찬해서 곧 찬록(撰錄)하게 했다(③). 넷째, 외교 업무를 위해 외국에 나간 사신들까지 사관 일을 맡게 했다(④). 뿐만 아니라 사관으로 하여금 어떤 인물의 현부(賢否)와 득실(得失), 비밀 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평가한 가장 사초(家藏史草)를 개인적으로 간직하게 했다(⑤). 다섯째, 세종은 기록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춘추관 당상관 한 사람이 매월 한 차례씩 춘추관에 출근해서 시정기 수찬(修撰)을 잘 하고 있는지를 엄격히 점검하게 했다(⑥). 여섯째, 안전한 기록물(시정기) 관리를 위해 포쇄(曝曬)하고 충주 사고(史庫)에 보관하게 했다(⑦).

#### 4. 세종이 정립한 ‘실록 전통’2 - 바르고 공정하게[直·직] 기록하라

■ 세종 : “그전 시대[前代·전대]의 여러 왕들이 선왕(先王) 때의 실록(實錄)을 친히 보지 않은 적이 없는 것 같다. 태종께서 《태조실록》을 보지

않으시매, 이 때 하륜 등은 보시는 게 옳다고 말했고, 변계량은 안 보시는 게 옳다고 말했다. 태종께서는 변계량의 논의를 따랐다. 지금 《태종실록》을 춘추관에서 이미 편찬을 마쳤으니, 내가 이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어떤가?”

■ 우의정 맹사성 등 : “이번에 편찬한 (태종)실록은 모두 가언(嘉言)과 선정(善政)만이 실려 있어 다시 고칠 것도 없으려니와 하물며 전하께서 이를 고치시는 일이야 있겠습니까. (그러하오나) 전하께서 만일 이를 보신다면 후세의 임금이 반드시 이를 본받아서 고칠 것이며, 사관(史官)도 또한 군왕이 볼 것을 의심하여 그 사실을 반드시 다 기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후세에 그 진실함을 전하겠습니까?[何以傳信於將來·하이전신어장래]”

■ 세종 : “그렇겠다[然·연]”

- 세종실록 13년 3월 20일

[해제] 세종은 국왕이라도 자기 재위 기간의 기록은 물론이고 그 이전 왕들의 실록을 보지 못한다는 중요한 전통을 세웠다. 세종도 자기 아버지, 태종에 대해 실록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궁금해했다. 하지만 1431년과 1438년 두 차례의 논란 끝에 “전하께서 보신다면 후세의 임금이 반드시 이를 본받아 고칠 것이며, 사관(史官) 또한 사실을 반드시 다 기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하들의 반대를 받아들였다. 결과적으로 이는 ‘실록 전통’이 되어 후대 왕들이 실록을 보지 못하는 전거로 작용했다. 역사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해서 공정함과 신뢰도를 높인 것이다.

### 5. 세종이 정립한 ‘실록 전통’ 3 - 사초(史草)의 원본성을 보전하라

① 일의 흔적을 없애려고 사초첩 전부[卷綜·권종]를 훔친 자는 ‘왕명(制書

· 제서]을 도둑질한 것으로 논죄하여 목 뱀<sup>15)</sup>, ② 도려내거나 굵어 없애거나, 먹으로 지우는 자 역시 '왕명을 찢어버린 것으로 논죄하여 목 뱀<sup>16)</sup>, ③ 동료 관원으로서 (사초를 훔치거나 지운 사실을) 알면서도 고하지 아니하는 자는 율에 의하여 한 등(等)을 감(減)함(즉, 목 졸라 죽이거나, 유배형에 처함).<sup>17)</sup> ④ 사초 내용을 외부인에게 누설하는 자는 '왕을 가까이 모시는 관리[近侍官·근시관]이 중요한 기밀을 남에게 누설한 것'으로 논죄하여 목 뱀<sup>18)</sup>, ⑤ 위사항으로 죄 지은 자는 비록 사면 받더라도 정범(正犯)은 직첩을 빼앗고 영구히 서용하지 말고,<sup>19)</sup> 만약 그가 죽었으면 직첩을 추탈(追奪)함<sup>20)</sup>, ⑥ (누설한 것을)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은 자와 누설한 자는 직첩만 거둬.<sup>21)</sup>

- 세종실록 31년 3월 2일

[해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세종 때부터 사초 관련해 정해진 두 가지 원칙이 있다. 그것은 첫째, 사초를 국가에서 거두는 시기이다. 처음에 세종은 분실의 염려가 있으니 사관이 죽으면 바로 사초를 거두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사관들은 태조 때 전례를 들어 국왕이 죽은 다음에 사초를 수납하기로 건의해서 윤희 받았다(세종실록 6년 12월 1일). 둘째, 사초의 원본성을 훼손한 자나 사초 내용을 누설한 자에 대해 엄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세종 때 성립된 사초관리[史草禁防·사초금방] 6조목으로 위 인용문이다.

여기서 보듯이, 사초는 국서(國書), 즉 국가의 가장 중요한 문서로 간주되었다. 사초 전부를 훔친 자는 물론이고, 몇 글자만 도려내거나 지운 자도 참형이라는 최고형을 받았다. 사초 내용을 외부에 누설한 자 역시

15) [斬全盜卷綜者 以盜制書律論斬·참전도권총자 이도제서율논참]

16) [截取磨擦墨抹者 以棄毀制書律斬·질취마찰묵말자 이기궤제서율참]

17) [知而不告者 依律減一等·지이불고자 의율감일등]

18) [史草事情漏洩外人者 以近侍官員漏洩機密重事於人律斬·사초사정누설외인자 이근시관원누설기밀중사어인율참]

19) [正犯人奪告身 永不敘用·정범인탈고신 영불서용]

20) [犯者物故 亦行追奪·범자물고 역행추탈]

21) [知而不告及漏洩者 只收職牒·지이불고급누설자 지수직첩]

참형 대상에 포함되었다. 심지어 사초를 지우거나 그 내용을 누설한 사실을 고발하지 않는 자도 중형에 처해졌다. 역모죄에 준하는 형벌이 사초 관련 범죄에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6. 세종이 정립한 '실록 전통'4 - 실록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라

춘추관(春秋館)에서 아뢰었다.

“<태조실록> 15권, <공정왕실록(恭靖王實錄)> 6권, <태종실록> 36권을 이제 각각 네 본(本)씩을 인쇄하였습니다. 한 본(本)은 본관(本館 : 춘추관)의 실록각(實錄閣)에 간직하여 두고, 세 본(本)은 충주(忠州)·전주(全州)·성주(星州)의 사고(史庫)에 나누어 간직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從之]

- 세종실록 27년 11월 21일

[해제] 세종은 종래 서울과 충주 두 곳에만 보관하던 실록을 전국 네 군데의 사고(史庫)로 분산 보관하게 했다. 이 조치는 재위 21년째인 1439년 6월과 11월 두 번에 걸쳐 취해졌다. 분산 보관을 먼저 제안한 부서는 사헌부였다. 사헌부 관리는 중국의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를 지은 다음 “명산(名山)에 간직하고 부분(副本)은 서울에 둔다” 말했음을 인용하면서, 충주 사고(史庫)의 실록 등을 “몇 본(本) 더 만들어서 각도 명산에 나누어 간직하고, 해마다 돌려가면서 포쇄(曝曬)하여 불우(不虞)에 대비하게 하소서”라고 제안했다(세종실록 21년 6월 26일). 이 때 사헌부가 올린 9개의 제안 중 세종은 유일하게 실록 등을 분산 보관하자는 의견만 채택했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뒤에 역사 기록과 보관을 담당할 춘추관에서 구체적으로 왕에게 보고한 게 위 글이다. 세종은 이때도 춘추관에서 올린 두 차례의 제안을 모두 채택했다. 그 하나는 21년째인 1439년 '경상도 성주(星州)와 전라도 전주(全州)에 사고(史庫)를 더 지어서 전적(典籍)을 간직하게 하자'는 춘추관의 건의이다(세종실록 21년 7월 3일). 다

른 하나는 위의 인용문처럼, 27년 재인 1445년 한양 춘추관, 충주, 전주, 성주(星州)의 네 곳 사고(史庫)에 분산 보관하자는 건의이다(세종실록 27년 11월 21일). 춘추관의 두 제안을 세종은 모두 받아들였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조선왕조실록>은 <승정원일기>처럼 임진왜란 때 불타고 말았을 것이다.

### 7. 열린 회의1 : 걸말 단계를 지나 속말까지 꺼내놓아라

모든 일은 위에 있는 사람이 비록 옳다고 할지라도, 아래 있는 사람이 마음속으로 그른 것을 알면[心知其非·심지기비], 진언(進言)하여 숨김이 없어야[進言無隱·진언무은] 마땅하다.

- 세종실록 31년 3월 29일

[해제] 세종이 왕위에 오르고 첫 번째로 한 말은 ‘과인이 인물을 잘 알지 못한다[予未知人物·여미지인물]. 그러니 함께 의논하고 싶다[同議·동의]’였다. 이미 스물두 살의 나이로, 당대 최고의 학자[文衡]인 변계량으로부터 학문적 능력을 인정받았고, 부왕 태종으로부터도 “정치적 대체(大體 : 기본이 되는 큰 줄거리)를 안다”고 인정받았던 세종이 “인물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겸손의 말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는 ① 신하들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그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한편 ② 정치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더불어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설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위의 인용문은 재위 막바지에 왕이 신하들에게 당부한 말로, 세종은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진심 어린 조언을 요청했다. 세종에 따르면 말에는 속말과 걸말 두 종류가 있다고 보고, 인사치레로 주고받는 걸말 단계를 지나 마음속에 쌓여 있는 속말까지 주고받을 때 비로소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었다고 할 수 있다. 회의할 때 세종이 거듭 강조한 것은 걸말 단계를 지나 속말까지 꺼내놓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몸을 사리는 말, 사안의 본질을 건드리지 않고 그저 통과의례로 회의를 이용하거나 침묵하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뒤늦게 우왕 좌왕하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회의 시간에 속말을 다 꺼내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8. 열린 회의2 : 좋은 의견이 흘러들어 오도록 자신을 낮추라

내가 왕위를 계승한 이후로 태조·태종께서 시작하신 일[緒業]의 중대함과 이를 지키기가 어려움을 우려려 생각하여,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기를 희망하여,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일한 것이 몇 년이 되었다. 그러나 하늘과 사람의 이치에 어두워,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많았다. 금년에 물난리와 극심한 가뭄이 연이어서 발생하고, 근년에 와서는 흉년이 거듭 들어서, 백성들이 고향을 떠나 흩어지게 되었다. 평안도 강원도 두 곳이 더욱 심하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대체 무슨 까닭인가. 사람살이에 근본적으로[五事] 실책이 있었던가.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내린 가르침이 사리에 어긋났던가. 또 그렇지 않다면 관리들이 일을 할 때 실속은 없이 형식만 잘 꾸며서 성심으로 백성을 사랑함이 없었던가. 만약 그도 아니라면 백성들이 원망이 있는데도 내가 미처 듣지 못했던가. 국가적인 재난을 극복하여 백성을 삶을 온화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 세종실록 5년 3월 28일

[해제] 세종은 어려움에 부닥치면 있는 그대로를 신하들에게 드러내고, 조언을 요청하곤 했다. 재위 5년 쯤인 1423년의 과거시험 문제로 출제된 위의 말은 세종이 처한 환경, 즉 잇따른 흉년과 물난리, 국가의 적극적인 구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굶주리는 백성들, 그리고 텅빈 국가 창고, 외침의 위험 등을 여실히 보여준다.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드러내야만 진실된 조언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재들의 진실된 조언을 듣기 위해 세종이 정한 회의운영 규칙은 다

음과 같다.

① 어전에서 엿드리지 말고 곧은 자세로 회의에 임하라(세종실록 5년 7월 3일).

② 국왕의 잘잘못을 모두 직언(直言)하라(세종실록 1년 7월 25일).

③ 긴급 사안 발생시 한 자리에 모여 의논하라[會于一處 可否商量 · 회우일처 가부상량](세종실록 3년 8월 5일).

④ 소수의 의견도 끝까지 경청하되 "한 사람의 말만[一人之言·일인지언] 가지고 결정해서는 안된다"(세종실록 4년 5월 28일).

⑤ 좋은 의견이 나오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실행하라(세종실록 5년 1월 20일 ; 5년 7월 24일)

**※ 그 외 세종의 지배구조 투명화 관련 자료**

① 나라 창고 곡식 등을 복식부기[重記]로 관리함(세종실록 2년 1월 11일).

② 모든 문서 사본 만들어 중앙·지방의 사고(史庫)에 보관케 함(세종실록 3년 3월 23일).

③ 감옥 안 '의문사' 방지를 위해 한양은 물론 지방 감옥의 죄수들까지도 감옥에서 죽은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해 보고하게 함(세종실록 19년 01월 23일).



## 2. 환경 존중 관련 읽을거리

### 1. 조선시대 환경 관련 법규1 - 허락 없이 벌목(伐木)한 자, 엄벌하라

○ 도성의 안과 밖에 있는 산에는 풋말을 세우는데, 근처에 사는 주민에게 나누어 맡겨서 벌목과 채석(採石)을 금지하고, 감역관(監役官)과 산지기를 정해서 살펴 지키게 한다. 감역관과 산지기는 병조에서 정하되, 감역관은 군직(軍職)이 있는 사람으로, 동반(東班)에 예에 의거하여 근무 일수를 계산해서 다른 관직으로 전임(轉任)시킨다.

○ 경복궁과 창덕궁의 주산(主山) 및 내맥(來脈 : 종산(宗山)에서 내려온 산줄기)은 산등성이와 산기슭에서의 경작을 금지하고, 도성 밖의 산은 산등성이에만 경작을 금지한다.

○ 공조와 한성부의 당하관이 협의해서 나누어 맡아 살피되, 만약 나무를 베거나 돌을 캐내어 가져간 자가 있으면 장(杖) 90대에 처하고, 나누어 맡은 사람과 산지기는 모두 장 80대에 처하며, 해당 관원은 장 60대에 처한다. 나무와 돌은 모두 관아에 몰수하며, 나무는 베어낸 자에게 그루수대로 심도록 한다.

○ 지방에서는 금산(禁山)을 정하여 벌목과 방화(放火)를 금지한다. 안면곶(安眠串)·변산(邊山)은 해운판관(海運判官), 해도(海島)는 만호(萬戶)가 담당하여 살핀다. 매년 봄에 소나무 묘목을 심거나 종자를 심어서 기르고, 연말에 묘목을 심거나 종자를 심은 수효를 갖추어 임금에게 보고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산지기는 장 80대, 해당 관원은 장 60대에 처한다.

- 『경국대전』 공전(工典) 재식(栽植)

[해제] 조선시대 환경 관련 법규는 엄했다. 위 인용문에서 보듯이, 허

락 없이 산림을 벌목한 자에게 장(杖) 90대를 때렸고, 관리를 맡은 산지기(山直)와 고을의 관리에게도 각각 장 80대와 60대를 때렸다(경국대전 '공전' 재식(栽植)). 이 규정대로 매를 맞을 경우 화재를 낸 사람은 물론이고, 담당 공무원과 지자체장까지도 불구에 가까울 정도로 매를 맞아야 했다. 도성 주변의 자연환경 관리는 더 철저해서, '성저(城底)10리'와 '4산(四山)' 안에는 건축이나 매장(埋葬) 등에서 한성부의 심한 규제를 받았다.

안면도 등에서는 매년 봄에 소나무 묘목을 심거나 종자를 심어서 기르게 했고, 지방 여러 곳에 금산(禁山)을 정하여 벌목과 방화(放火)를 금지했다. 경상도와 전라도 바닷가 여러 고을에는 홍굴나무·굴나무·유자나무를 특별히 관리한 점도 눈에 띈다. 매년 가을에 관찰사가 차사원(差使員)을 보내 살피고, 그 수효를 갖추어 임금에게 보고한 것이다.

## 2. 조선시대 환경 관련 법규2 - 실화한 자 중형(重刑)에 처한다.

실수로 불을 낸[失火] 사람을 죄 주되, 종묘(宗廟)와 궁실을 연소한 자는 교형(絞刑)에 처하고, 임목(林木)을 연소한 자는 장(杖) 1백 대를 때리고 한양에서 2천 리 떨어진 곳에 유배 보낸다.

- 태종실록 17년 11월 10일

[해제] 실수로 산을 불태운 자를 '장(杖) 1백 대와 한양에서 2천 리 떨어진 곳으로 유배'라는 중형에 처했다.

## 3. 조선시대 사람들의 환경 인식 - 포진천물은 최악이다.

이른바, '포진천물'이라 함은 어떤 것입니까. 백성의 고혈(膏血)을 취하여 (건은 물건을) 쓸데없는 곳에 버리는 것을 '포진천물'이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도리어 헛 비용을 줄여서 국가의 경비에 보충하는 것을 '포진천물'이라고 합니다.<sup>22)</sup>

[해제] 포진천물(暴殄天物)이란 하늘이 내린 자연을[天物] 마구 써 버리는[暴殄] 행위를 뜻한다. 무왕(武王)은 주왕(紂王)을 토벌하면서 “하늘이 낸 물건들을 함부로 없앤[暴殄天物·포진천물]” 죄를 거론했다. 물건을 아끼지 않고 마구잡이로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는 방벌(放伐)의 대상이기도 했다(진덕수, 『대학연의』 권6 格物致知之要; 『상서정의』 제11권 주서(周書)).

세종을 비롯한 조선시대 사람들은 자연을 개발·개척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낳고 기른 부모요, 나와 본성이 같은 친구로 인식했다. 우주의 본성은 그 중 일부인 나의 본성과 상통한다고 보았다. 하늘과 땅은 음양과 오행의 이치대로 움직이며,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사람 역시 음양오행 이치를 어기지 말아야 하는데, 하늘이 만든 자연을 마구 써 버리려는[暴殄天物·포진천물] 행위는 재앙을 불러온다고 믿었다.

포진천물을 막기 위해 조선왕조는 환경 업무를 여러 부처에서 나누어 맡게 했다. 가령 공조는 산림과 연못[山澤·산택], 궁궐 내 건물[宮室·궁실], 성곽과 해자[城池·성지]를 관리했다. 예조는 산천 제사를 주관하는 부서로서 환경을 보호할 책임이 있었고, 한성부와 병조 역시 환경파괴자를 단속하고 나무심기 등을 담당하는 부서였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여타의 만물과 함께 하늘의 뜻[天命·천명]으로부터 생성된 존재로서 “금수나 초목, 또는 천지만물을 다스리고 이용할 수 있지만” 그 이용에 있어서 시간과 대상을 가려야[擇·택]한다고 믿었다(오승봉 · 안동만 1995, 53-54쪽).

#### 4. 세종의 자연관1 - 자연과 인간이 둘이 아니다.

“하늘과 땅의 이치는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일 뿐이다.  
[天地之道 一陰陽五行而已]

22) [所謂暴殄天物 何耶. 取民膏血 棄之無用之地. 不以爲暴殄 而反以省浮費充國用爲暴殄歟]

무릇 생명을 지닌 무리로서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것이라면  
음양을 두고 어디로 가라[凡有生類在天地之間者 捨陰陽而何之]  
고로, 사람 목소리 역시 음양의 이치를 담을 수밖에 없다.”  
[故人之聲音 皆有陰陽之理]

- 『훈민정음 해례』 제자해(制字解)

[해제] 세종은 위의 《훈민정음 해례본》 제자해에서 자연과 인간이 둘이 아니라고 말했다. 사람과 만물이 분리되지 않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균형을 깰 정도로 인간이 환경을 착취할 경우, 혹은 정치를 잘못하면 재변이 생긴다고 보았다. 특히 위정자들의 실정으로 백성들이 생존을 위해 연못을 포위해 물고기를 모조리[群·군] 잡고, 산과 들에서 동우리를 뒤엎어 새끼와 알까지 취하며, 짐승 뱃속의 태(胎)를 죽이거나 새끼를 잡을 경우 하늘이 경고한다고 믿었다. 그들은 가뭄이나 홍수 혹은 지진과 같은 재변을 위정자를 꾸짖는 신호라고 생각했다. 왕과 관리들은 곧장 긴장모드로 전환하고 사람들에게 그 해법을 구해야만 했다[求言·구언].

##### 5. 세종의 자연관2 - 자연을 외경(畏敬)하되 사람의 일을 다하라.

“하늘과 땅의 이치는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일 뿐이다.<sup>23)</sup>  
무릇 생명을 지닌 무리로서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것이라면  
음양을 두고 어디로 가라.<sup>24)</sup>  
고로, 사람 목소리 역시 음양의 이치를 담을 수밖에 없다.”<sup>25)</sup>

- 『훈민정음 해례』 제자해(制字解)

[해제] 세종은 자연을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되, 거기서 더 나아가

23) [天地之道 一陰陽五行而已 · 천지지도 일음양오행이이]

24) [凡有生類在天地之間者 捨陰陽而何之 · 범유생류재천지간자 사음양이하지]

25) [故人之聲音 皆有陰陽之理 · 고인지성음 개유음양지리]

자연의 원리를 탐구하고 도전해야 한다고 보았다.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고 인간 본성을 자연 이치에서 찾는다고 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인간의 역할까지 경시하지는 않았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인간은 삼라만상을 연결짓고 보살피는 존재였다. ‘훈민정음이 천지인 3재(才)로 이뤄지되, 사람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구절이 그 예다. “초성 중성 종성이 어울려 글자를 드러내는데” “움직이는 것은 하늘이요, 머무는 것은 땅이다. 움직임과 멈춤을 겸한 것은 사람이다.” “초성은 움직여 피어나는 뜻이 있으니 하늘의 일이다. 중성은 정해져 멈추는 뜻이 있으니 땅의 일이다. 중성은 초성을 생기게 하고, 이어서 종성을 이루어지게 하여서 붙게 하니 사람의 일이다.”(교보문고 2015, 143-145쪽).

이 책에 따르면 “글자 소리의 핵심은 중성에 있는데” “천지가 만물을 낳고 이룩해도 쓸모있게 하고 서로를 돕는 것은 반드시 사람을 기다려 이뤄진다[待人而成·대인이성].” 말하자면 천지인 중 사람에게 해당하는 중성이 있어야 온전한 글자가 이뤄지듯, 인간과 자연의 상생 역시 책임지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 6. 세종시대 지식인의 자연관 - 사물의 본성을 깨닫고 그 이치를 넓혀가라.

“아침저녁으로 살펴보면 화초 하나하나가 성질이 각기 다르다. 습한 곳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건조한 곳을 좋아하는 것도 있다. 찬 데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 따스함을 좋아하는 것도 있다. 가꾸고 물주고 햇볕 쬐 때 한결 같이 옛 법을 따랐고, 옛 법에 없는 것은 보고 들은 바를 살려서 하였다. [...] 화초는 하나하나 잎이 탐스럽고 꽃도 활짝 피어서 제 모습을 드러냈다. 이는 화초의 각기 본성을 잘 알아서 거기에 맞추었기[各全其天] 때문이다. 처음부터 꺾부리거나 강제로[智力] 한 게 아니다. [...] 내 이제야 양생(養生)하는 법을 알았다. 이로써 미루어 그 이치를 넓혀 간다면[因此而擴充之]

무어든 못할 일이 없으리라.

- 강희안, 『양화소록』 자서

[해제] 훈민정음 해례 편찬에 참여한 ‘훈민정음 8학사’의 한 명인 강희안(姜希顔, 1418 ~ 1464)이 쓴 원예 서적 『양화소록(養花小錄)』의 일부이다. 강희안은 1441년(세종 23)에 과거에 급제하고, ‘훈민정음 해례’ 및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주석’ 등 세종 때의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강희안은 『양화소록』에서 꽃과 나무의 원리를 깨닫고 재배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꽃 가꾸는 일을 국가경영에 비추어 서술하기도 했다(오반죽, 굴나무, 서향화). 세종을 기쁘게 했던 일본 철쭉 이야기(107-8쪽), 선비들이 글 읽는 책상 위에 두었던 석창포 이야기(117-123쪽), 그리고 단군 때부터 우리나라에 나고 자랐다는 무궁화 이야기(164-165쪽)도 흥미롭다.

위 글에서 강희안은 ‘화초 하나하나의 성질을 파악하여 그 본성에 따라 맞추어 키우면 잎이 탐스럽고 꽃도 활짝 피어서 제 모습을 드러낸다’고 말했다. 이른바 양생(養生)하는 법은 우주 원리를 공부해서 파악하고 그 원리에 따르면 꽃과 나무는 물론이고 나의 삶과 국가경영도 순리대로 잘 되어 간다고 보았다. 강희안에 따르면 “천지간에 가득한 만물들은 저마다 현묘한 이치를 갖추고 있는데, 그 이치를 연구하지 않고는 알 길이 없다.” 천지 만물이 지닌 이치를 생각하여 그 근원까지 파고 들어가서, 두루 미치는 지식을 꿰뚫으면 사람의 마음이 만물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 한마디로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라 할지라도 그 이치를 탐구하는[究其理] 자세는 곧 뜻을 성실히 하고[意誠], 지극한 앞에 이르며[知至], 몸을 닦는[身修] 태도와 일치한다(141-143쪽). (강희안, 『양화소록』 이병훈 번역, 을유문화사, 1973).

### 3. 사회 공헌 관련 읽을거리

#### 1. 조선시대 ‘삶의 질’ 기준, 오복(五福)

오복의 첫째는 오래 사는 것[壽·수]이요, 둘째는 부유하게 사는 것[富·부]이다. 셋째는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것[康寧·강녕]이며, 넷째는 덕 베풀기를 좋아하는 것[攸好德·유호덕]이다. 그 다섯 번째는 자기 소명을 마치고 죽는 것[考終命·고종명]이다.

- 『서경』 권6 주서 홍범(洪範)

[해제] ‘덕 베풀기[攸好德]’는 『서경(書經)』 홍범(洪範)에 나와 있는 “오복(五福)”의 하나다. 잘 알려져 있듯이, 오복은 ① 오래 사는 것[壽·수]과, ② 부유하게 사는 것[富·부]과, ③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것[康寧·강녕]과, ④ 덕 베풀기를 좋아하는 것[攸好德·유호덕]과, ⑤ 소명을 마치고 죽는 것[考終命·고종명]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서 유교 사회에서 사람들은 부유하고 편안한 가운데 건강하게 오랫동안 선을 베풀며 살다가 자기 소명을 다하고 편안히 죽는 것을 이상적인 삶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세종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쓴 제문(祭文)이나 헌사(獻辭), 그리고 인명(人名) 등에 “오복”이란 말이 자주 쓰인 것을 통해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세종실록 5년 1월 22일; 9년 3월 4일; 9년 3월 29일; 18년 7월 22일 등).

이 중에서 ‘덕 베풀기’는 ESG 경영 차원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덕 베풀기’는 오늘날은 물론이고 전통시대 사람들이 부리기에 적절한 복이었다. 가령 “사방 100리 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가훈에 따라 일년 수입의 1/3을 주변 빈민구제에 힘쓴 경주 최부자집의 노블레스 오블리제는 대표적인 ‘덕 베풀기’ 사례다(조영현 2002, 40~71쪽). 세종 역시 ‘덕 베풀기’를 실천했다. 1436년 병진년 대가뭄 때 세종은 “하늘의 운수는 비록 그렇더라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자”면서 왕의 아들과 손자의 연봉을 크게 줄이라고 명했다. 이후로 대

군의 연봉 상한선을 정하고 법제화하라고 지시했다(세종실록 19년 1월 12일).

## 2. 장재(張載)의 서명(西銘) - 유교지식인들의 자연관과 사회관

“하늘은 나의 아버지요, 땅은 나의 어머니라. 나는 지극히 작은 미물로 그 안에 거한다.<sup>26)</sup>  
우주를 이루는 것들이 내 몸이라 하면, 우주를 향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본성이다.<sup>27)</sup>  
모든 사람은 나의 형제자매요, 모든 사물은 곧 나의 친구라.<sup>28)</sup> [...] 나이 많은 이를 존대함은 어른을 어른으로 높이는 것이고, 고아나 어린 아이에게 자애롭게 함을 내 어린 아이 사랑하듯이 한다.<sup>29)</sup>  
무릇 세상의 모든 노쇠하고 지친 사람, 병들고 상한 사람, 형제 없는 외아들, 늙어서 자식 없는 사람, 아내 없는 홀아비, 남편 없는 과부는<sup>30)</sup>  
모두 다 나의 형제들이면서 곤궁하여[顛連] 호소할 데 없는 사람들이다.”<sup>31)</sup>

- 장재, 『정몽』 서명(西銘)

[해제] 중국 송나라 사상가 장재(張載: 1020년 ~ 1077년)의 자연관과 사회관이 담긴 글이다. 서명(西銘)은 장재의 대표 저작 『정몽(正蒙)』의 한 편(乾稱)으로 천지만물과 나라는 존재와의 관계가 집약되어 있다. 서명(西銘)이라는 이름에서 보듯이, 장재의 서재 서쪽에 걸린 글로서 ‘정완(訂頑)’, 즉 ‘어리석음을 물리친다’는 뜻을 담고 있었다. (\* 서재 동쪽에는 동명(東銘)이라는 글이 걸려 있었는데, ‘둔함을 바로잡는다’는 ‘편

26) [乾稱父 坤稱母 予茲藐焉 乃混然中處 · 건칭부 곤칭모 여자막언 내혼연중처]

27) [故天地之塞 吾其體 天地之帥 吾其性 · 고천지지색 오기체 천지지수 오기성]

28) [民吾同胞 物吾與也 · 민오동포 물오여야]

29) [尊高年 所以長其長 慈孤弱 所以幼吾幼 · 존고년 소이장기장 자고약 소이유오유]

30) [凡天下疲癯殘疾 惻獨鯨寡 · 범천하피롬잔질경독환과]

31) [皆吾 兄弟之顛連 而無告者也 · 개오 형제지전련 이무고자야]



우(砒愚)의 뜻이다.)

서명은 장애 생존 당시 지식인들은 물론, 조선시대의 왕과 사대부 사이에도 널리 인용되고 검토되는 심성 수양의 실천서였다(장윤수, “퇴계 이황과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의 「西銘」 담론.” 『퇴계학보』 151집, 2022). 서명은 1419년(세종1)과 1426년(세종8)에 명나라에서 조선으로 들어왔는데, 세종은 1432년(세종14) 2월부터 1434년(세종16) 3월까지 경연에서 『성리대전』을 강론했다. 뿐만 아니라 각 도의 감사에게 보급하여 지방의 학자들에게 읽히도록 권장했다. 서명에 담긴 사상, 즉 천지 만물과 사람이 둘이 아니라는 인식과, 장애인과 환과고독 등 사회적 약자를 모두 다 나의 형제로 보고 보살피는 게 지도자(성인과 현인)의 책무라는 생각은 세종시대를 포함한 조선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 3. 세종의 백성관 - “백성은 나라의 근본”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평안하게 된다. 내가 박덕한 사람으로서 외람되이 백성들의 임금에 되었으니, 오직 이 백성을 기르고 보살피는 방법만이 마음속에 간절하다. (...) 원통하고 억울한 처지를 면하게 하여, 시골 마을에서 근심하고 탄식하는 소리가 영원히 끊어지고 각자 즐겁게 생업에 종사하게[生生之樂] 할 것이다.

- 세종실록 5년 7월 3일

[해제] ESG 경영 중 사회(S) 부분의 핵심은 구성원들의 빈곤과 질병, 그리고 호소할 데 없는 억울함을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공동 대응하자는 사회적 책임론이다. 2015년에 UN이 설정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가지' 중에 '빈곤 종식' '기아해결' '건강과 복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제시된 것도 그런 인식의 반영이다. 이른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의 구체

적인 목표가 바로 빈곤과 질병과 억울함의 최소화인 것이다.

위 인용문은 재위 5년째인 1423년 여름에 세종의 국정 우선 순위로 제시한 <민본교서> 내용이다. 이 <민본교서>에서 세종은 국왕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切切于懷·절절우회] 사안으로 ‘빈곤 퇴치’ ‘기아 종식’, 즉 민생과 함께 ‘원통하고 억울한 백성 없애기’를 꼽았다. 백성 기르고 보살피는 방법[惠養撫綏之方·혜양무수지방] 찾는 것을 국가 지도자의 최고 임무, 즉 ‘마음속에 간절히 품어야’ 할 사안이라고 세종은 말했다. 인상적인 것은 그래야 하는 이유인데, 세종은 ‘백성이 곧 나라의 근본’, 즉 뿌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겉으로 보기에 나무, 가지, 꽃, 열매가 중요해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은 그 뿌리가 튼튼할 때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세종은 백성을 하늘이 맡겨준 존재[天民]라고 생각하고 그들과 더불어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다. 재위 12년(1430년)에 경상도 관찰사가 ‘개간한 밭을 면세해 주려 해도 새로 일군 땅을 구분해내기 쉽지 않다’면서, ‘그냥 일괄해서 기존의 경작지와 같은 세금을 매기자’는 보고를 올렸다. 이 보고를 받은 세종은 “어찌 구분해낼 수 없다는 말인가? 일이 의심스럽다면, 백성들과 더불어 하면 될 것[與民可矣]”이라고 하며, 개간지 면세 원칙을 고수했다.

세종이 이처럼 여민을 중시한 것은 위민론의 한계 때문이었다. 앞서도 말했듯이 처음에 백성을 위해 시작한 일이 오히려 백성을 해치는 일로 변질하는 경우가 많았다. 재위 말년의 사창(社倉)제도 논란이 그 예다.

사창제도는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와 함께 받아들이는 빈민 구호제도로 송나라의 주희가 처음 주장했고, 세종 재위 18년에 충청 감사 정인지가 도입을 제안했다. 하지만 신숙주가 지적한 것처럼, “본래 백성을 위한 것이었지만[本欲爲民], 이자를 거두는 과정에서 관리들의 횡포가 날로 늘어 민폐가 심각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위민(爲民)이 해민(害民)으로 변질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세종은 백성들에게 중요한 정보와 지식을 주어서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관점에서 해시계를 만들어 종로 네거리  
에 내어놓고, 물시계를 제작해 전국의 표준시간을 반포했으며, 신하들의  
반대에도 훈민정음을 창제해 문자(文字)라는 권력을 백성들과 공유했다.

#### 4. 학교는 나라 풍속과 인재 양성의 근원

학교는 교화의 근본이다. 여기에서 인륜을 밝히고, 여기에서 인재를  
양성한다.<sup>32)</sup> 삼대(三代)<sup>33)</sup> 이전에는 학교 제도가 크게 갖추어졌었고,  
진(秦)·한(漢) 이후로도 학교 제도가 비록 순수하지는 못하였으나 학  
교를 중히 여기지 않음이 없었으니, 한 시대의 정치 득실이 학교 흥폐  
에 좌우되었다.<sup>34)</sup> 그러한 자취를 오늘날에도 역력히 살필 수 있는 것  
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에 성균관을 설치하여 공경(公卿)·대부(大夫)의  
자제 및 백성 가운데서 준수한 자를 가르치고, 부학 교수(部學教授)를  
두어 동유(童幼)를 가르치며, 또 이 제도를 확대하여 주·부·군·현에도  
모두 향학(鄉學) 향교(鄕校)을 설치하고 교수와 생도를 두었다. 병률  
(兵律)·서산(書算)·의약(醫藥)·상역(象譯) 통역(通譯) 등도 역시 이상과  
같이 교수수를 두고 때에 맞추어 가르치고 있으니, 그 교육이 또한 지극  
하다.

— 정도전, 『조선경국전』

[해제] 정도전은 태종과 함께 세종에게 큰 영향을 준 인물이다. 정치  
이념으로서 ‘민본사상’과 의정부서사제라는 정부형태론, 그리고 나라 전  
체를 학교로 만들어 백성을 교화하려는 ‘학교국가론’ 등이 대표적인 영  
향이다. 위 글에서 정도전은 학교의 역할을 풍속교화[明人倫·명인륜]와  
인재양성[成人才·성인재]을 꼽고 있다. ‘그 시대의 정치를 잘하고 못함  
이 학교의 흥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도 말했다. 도성에는 고등교육기관

32) [教化之本也 于以明人倫 于以成人才 교화지본야 우이명인륜 우이성인재]

33) 중국 고대의 하(夏), 은(殷), 주(周)의 세 왕조로 잘 다스려진 시대로 일컬어짐.

34) [一時政治之得失 係於學校之興廢 일시정치지득실 계어학교지흥폐]

으로서 성균관과 중등교육기관인 5부학당(동부학당·서부학당·남부학당·북부학당·중부학당)을 두고, 지방에도 향교(鄕校)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도전이 작성한 '태조 즉위교서'에도 학교는 강조되었다. 왕위에 오른지 11일 만인 1392년 7월 28일 태조 이성계는 “중양에는 국학, 지방에는 향교에 생도를 더 두고, 강학을 힘쓰게 하여 인재를 양육하게 할 것”이라고 선포했다(태조실록 1년 7월 28일). 『사서(四書)』와 『오경(五經)』과 『통감(通鑑)』 등 유교 경전에 통달한 사람을 문관에, 『무경칠서(武經七書)』와 활쏘기와 말타기[射御] 등에 뛰어난 사람을 무관으로 뽑아 쓰겠다고 약속했다.

정도전의 '학교국가론'은 세종에 의해 그대로 계승·발전되었다. 세종은 즉위한 직후 중양과 지방의 신료(臣寮)에게 '학교는 풍속과 교화(教化)의 근원[風化之源·풍화지원]'이라면서 생도 교양 방법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세종은 특히 성균관에서 수학(受學)하는 방법과 지방 향교의 생도(生徒)가 학업에 전념할 방도를 의정부와 육조(六曹)에서 검토 연구하여 아뢰라고 지시했다(세종실록 즉위년 11월 3일). 왕의 거듭된 강조와 성균관 대사성 권채 등의 여러 신하들의 건의와 제안 등에 힘입어 세종시대에 들어 조선 교육 체제가 정비되었다. 가령 예조판서 허조는 5백호 이상되는 고을에 교관을 임명하도록 건의하여 관철시켰다(세종실록 즉위년 12월 21일; 1년 11월 15일). 세종 10년(1428)부터는 종학(宗學)을 세워, 대군(大君) 이하 8세 이상의 종친 자제는 모두 입학시켜 유교 교양을 배우게 했다(세종실록 10년 7월 12일).

세종시대 교육과 관련해 주목할 점이 있다. 세종은 재위 초반의 위기 상황, 즉 강원도와 경기도 등 중부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들고, 화폐정책 실패와 그에 따른 도성방화사건과 같이 백성의 불만이 표출되는 상황에서 성균관과 집현전의 인재양성에 집중했다. 성균관 지원인력이 증

원되었으며(성균관 서리(書吏) 정원을 33% 증원, 세종실록 7년 6월 14일), 온돌과 목욕탕과 식당(출석부) 및 의사 상근과 같이 성균관 복지시설이 대폭 향상되었다(세종실록 7년 7월 19일). 뿐만 아니라 집현전 학사들에게는 사가독서라는 독서휴가제를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세종은 새로 간행한 『입학도설』 등 10여 종의 책을 성균관 사부학당에 내려주는 등(세종실록 7년 11월 2일) 신간서적을 하사했으며, 정인지, 설순, 김빈 등 집현전 학사들을 뽑아 역사공부를 하게 했다(세종실록 7년 11월 29일). 성균 유생들의 식량 및 장학 지속 관리 위해 양현고를 오랫동안 담당관리케 해서 장학제도 내실화했다(세종실록 8년 11월 12일). 한마디로 세종은 경제 위기 등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에서 더욱 인재 양성에 집중했다.

#### 5. 세종시대 지역인재 육성

지방 각 고을에 교수(敎授)·훈도(訓導)를 두고, 감사가 그 전최(殿最: 근무평정)를 고찰하며, 예조에서 그 유생(書徒)들을 시험하여 위에 아뢰는 것은 법으로도 타당하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법은 있으나 그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으니, 비읍건대 경상 좌우도에 각각 도회(都會) 2개소를 두고 매 1개소마다 40인을, 전라·충청도에 각각 2개소를 두고 매 1개소마다 30인을, 강원도에 2개소를 두고 매 1개소마다 20인을, 황해도·평안도에 각각 1개소를 두고 매 1개소마다 20인을, 함길도에 1개소를 두고 15인을 정원으로 하여, 봄에는 3월 보름 뒤부터 4월 그믐까지 가을에는 8월 보름 뒤부터 9월 그믐까지, 경사(經史)에 통달한 교수나 학문을 좋아하는 생도를 뽑아 모아서, 공릉(公廩)으로 먹여 학문에 부지런히 힘쓰게 하고, 감사와 수령이 돈독히 권면(勸勉)하면 궁촌(窮村)이나 초야(草野)의 선배들도 거의 향방(向方)을 알게 되어 (학문이) 진작될 것입니다.

- 세종실록 11년 1월 3일

[해제] 위의 글은 좌의정 황희 등이 세종에게 글을 올려 윤희 받은 지

방 학교 진흥책이다. 세종과 그 시대 사람들 역시 지방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공동체 문화를 진작시키는 데 힘을 기울였다. 수령 칠사(七事), 즉 수령이 부임해서 추구해야 할 7가지 목표 중 하나가 ‘학교 진흥[學校興]’로 중시되었다(세종실록 7년 11월 14일; 18년 5월 12일).

세종은 지방 학교 발전을 위해 교사인 학장(學長)에게 월급을 주게 하고, 감사와 수령이 돈독히 권면(勸勉)하게 하였다(세종실록 11년 1월 3일, 11년 5월 1일). 지방의 향교 생도(生徒)들에게 중국어·일본어·몽고어 등을 배워 통역관으로 활동하게 하거나(세종실록 12년 8월 29일), 중앙의 하급관리로 채용하게 하였다. 중국에서 책을 구입해서 지방 향교에 배포하게 하는가 하면(세종실록 7년 5월 25일) 『소학(小學)』 등 책을 내려주기도 했다(세종실록 17년 9월 21일; 17년 10월 25일; 23년 10월 18일 등). 그뿐만 아니라 향교 생도(生徒) 공부량을 수령이 분간해 과거에 응시하도록 도와주고, 성적이 우수한 자는 임용하게 했다(세종실록 26년 2월 4일; 5년 12월 16일). 개인 집에 학교(서당)를 열어서 지역의 아동들을 가르친 경상도 박호생 등을 특별히 포상하기도 했다(세종실록 18년 10월 8일).

세종이 보기에 향교는 지방 젊은 인재를 기르는 학교이자 지역 단위의 문화행사가 치러지는 거점이었다. 향교를 중심으로 향음주례(鄉飲酒禮) 베풀어서 친목(親睦)을 도모한 일이나, 재위 19년 짜인 1437년 7월 각 고을 학교에 학령(學令)을 세운 일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세종실록 오례 가례 의식; 세종실록 19년 7월 10일). 후자, 즉 학령(學令) 수립과 관련하여 성균 주부 송을개는 배우는 자로 하여금 학문하는 방법[爲學之方·위학지방]을 알고, 권선징악 풍토[彰善癉惡之風·창선단악지풍]를 이루게 하려면, 향교에 선부(善簿)와 벌부(罰簿) 두 장부를 따로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여러 생도 중에서 경서에 밝고 행실을 닦아, 효성 있고, 우애하고, 친척간에 화목하고, 남을 도와주는 행실이 있어” 두드러진 자는 선부에 기록해야 한다. 반면 “경학에는 힘쓰지

않고 오로지 허탄(虛誕)·망령(妄靈)한 것만 일삼고, 불효하고 불목(不睦)한 따위의 행동이 한 고을에 소문이 퍼져서 풍화를 상하게 하는 자가 있으면 벌부에 기록”해야 한다. 향교 책임자가 수령과 함께 기록을 담당하되 매년 연말에 가서 관찰사와 조정에 보고하게 하자는 게 송을개의 제안이었다. 세종은 의정부 검토를 거쳐 그 제안을 채택했다(세종실록 19년 7월 10일).

#### 6. 세종의 사회윤리 고양 방법 - 삼강행실도 프로젝트

선덕 신해년(세종 13년, 1431년)에 우리 주상 전하께서 측근의 신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삼대(三代)의 정치가 훌륭하였던 것은 다 인륜(人倫)을 밝혔기 때문이다. 후세에서는 교화가 점점 쇠퇴하여져서, 백성들이 군신(君臣)·부자(父子)·부부(夫婦)의 큰 인륜에 친숙하지 아니하고, 거의 다 타고난 천성에 어두워서 항상 각박(刻薄)한 데에 빠졌다. 간혹 훌륭한 행실과 높은 절개가 있어도, 풍속 습관에 옮겨져서 사람의 보고 듣는 자의 마음을 흥기(興起)시키지 못하는 일도 또한 많다.

내가 그 중 특별히 남달리 뛰어난 것을 뽑아서 그림과 찬을 만들어 중앙과 지방에 나누어주노니, 우매한 남녀들까지 다 쉽게 보고 느껴서 분발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 하면, 또한 백성을 교화하여 풍속을 이루는 한 길이 될 것이다.”

마침내 집현전 부제학 신(臣) 설순에게 명하여 편찬하는 일을 맡게 하였습니다. 이 책에 중국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 동방(東方) 고금(古今)의 서적(書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모았습니다. 그 중에서 효자·충신·열녀로서 우뚝이 높아서 기술할 만한 자를 각각 1백 인을 찾아내어, 앞에는 형용을 그림으로 그리고 뒤에는 사실을 기록하였으며, 모두 시(詩)를 붙였습니다. [...]

지금 우리 주상 전하께서는 신성(神聖)하신 자질로 임금이며 스승인 도리를 다하고 계십니다. 공은 이루어지고 정치는 안정하였으며 일반

가지 일들이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리하여 강상(綱常)을 뿌리박아 심어서 세상의 올바른 도리를 유지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명교(名敎)에 관계 있는 것은 강구(講究)하고 헤아려 정하여 떳떳한 법으로 나타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백성을 몸소 실행하고, 마음으로 얻게 한 결과로써 감화되게 하는 것은 이미 그 지극함을 다하였건만, 그리고도 오히려 흥기(興起)시키는 방법에 다하지 못한 것이 있을까 염려하여, 드디어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널리 민간에 퍼서 어진 이이거나 어리석은 자이거나 귀한 사람·천한 사람·어린이·부녀자의 구별 없이 다 즐겨 보고 익히 들으며, 그 그림을 구경하여 그 형용을 상상하고, 그 시를 읊어서 인정과 성품을 본받게 한다면, 흠선(歆羨)하고 감탄하고 사모하여서 권면과 격려로 그들의 다같은 본연의 선심(善心)이 감발(感發)되어, 자기들의 직분의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다하지 않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 세종실록 14년 6월 9일

[해제] 세종은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했다. 국가나 기업 혹은 공공기관의 리더들이 구성원의 ESG 이해수준을 높이기 위해 고민하는 것처럼, 세종 역시 사회 기풍과 백성들의 의식 수준을 진작시키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세종의 방법은 억지로 백성들을 강제하는 대신 좋은 사례를 자주 보고 듣게 하는 것이었다. 『삼강행실도』란 책의 반포라는 이른바 '스토리텔링'에 의한 교육방법이 그것이다.

세종은 1431년(세종 13)에 집현전(集賢殿) 부제학(副提學) 설순(僉循) 등에게 명해 조선과 중국의 서적에서 군신(君臣)·부자(父子)·부부(夫婦) 등 세 가지 버리[三綱]의 모범이 될 만한 충신·효자·열녀를 각각 35명씩 모두 105명을 뽑아 적게 했다. 글자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해 수령들로 하여금 학식이 있는 사람을 골라 『삼강행실도』



의 내용을 전파하도록 했다. 그 대상은 귀천을 따지지 않았고, 여염집 부녀와 골목의 아이들까지 뜻을 이해하여 내용을 외울 수 있을 정도로 널리 퍼뜨리는 것이었다.

『삼강행실도』의 특징은 중요한 내용을 그림으로 그렸다는 점이다. 어려운 한문을 잘 모르는 백성들도 그림을 보고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사례들을 그림으로 설명하고 한문으로 설명한 다음 7언 절구(七言絶句) 2수의 영가(詠歌)에 4언1구(四言一句)의 찬(贊)을 붙였다. 이 책은 1481년(성종 12)에 한글로 번역되어 간행되었고, 이어 1511년(중종 6)과 1516년, 1554년(명종 9), 1606년(선조 39), 1729년(영조 5)에 각각 다시 간행되어 교화서(教化書)로 사용되었다. 이야기와 그림을 통해 사회 기풍과 백성들의 의식 수준을 진작시키려는 세종의 ‘삼강행실도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추진되었다.

#### 7. 세종의 사회공헌 - 국왕 가족의 재산 일부를 국가에 헌납하라.

하늘의 재앙(天災)과 땅의 재변(地異)이 있고 없는 것은 인력으로 할 수 없다. 하지만 배포(配布)와 조치를 잘하고 못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다할 수 있다.<sup>35)</sup> [...] 자손이 번성하고 많은 것이 경사라고는 하지만, 한갓 하늘이 주는 국록(天祿)을 허비하고 건물을 수리함(營繕)이 또한 많아 감응(感應)으로 부른 재앙이 있는가 생각되어 내가 심히 부끄럽다. 그 나머지 나의 종친(宗姓)들의 과전(科田)은 갑자기 줄일 수 없으므로 친아들·친손자의 과전을 줄이려고 하는데, 여러 사람의 뜻은 어떠한가.<sup>36)</sup>”

- 세종실록 19년 1월 12일

[해제] ‘욕감과전(欲減科田)’이란 ‘바라건대 과전을 줄이고자 한다’는

35) [災異之有無 非人力之所致 布置之得失 國人為之可盡 · 재이지유무 비인력지소치 포치지득실고인위지가진]

36) [欲減親子親孫科田 · 욕감친자친손과전]

뜻이다. 여기서 과전은 수확량의 일부를 거둘 수 있는 권리를 관리에게 준 토지를 가리킨다. 세종 재위 19년(1437년)은 그의 재위 초반인 5년 전후와 함께 경제적으로 가장 흑독한 시기였다. 실록을 보면 직전 해인 1436년은 봄과 여름에 계속 가물어 시내와 우물까지 모두 말랐다. 그래서 경기도 남부 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다. “경상도와 전라도의 바닷가 두어 고을이 조금 결실을 거두었을” 따름이다. 설상가상으로 1437년 봄에는 역질(疫疾)이 크게 유행하여 “백성들이 자기 손으로 소와 말을 잡고, 나무껍질을 벗기고, 보리 뿌리를 캐어 먹이를 하며, 처자를 보전하지 못하여 처자를 버리고 도망하는 자도 있었다”(세종실록 19년 2월 9일).

이에 세종은 전국에 진제장(賑濟場)을 설치해 그곳에 오는 자는 출신지와 신분을 묻지 말고 음식을 주게 했다. 그리고 수령들의 승진평가에는 얼마만큼 많은 기민을 효과적으로 구제했는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그는 “급히 수령들로 하여금 이 뜻을 경내에 통고하게 하여, 궁촌(窮村) 벽항(僻巷)의 백성들까지도 고루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서 마음대로 왕래하게 하라”고 하여 소통을 매우 중시했다. 그런 가운데 세종은 구휼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재산을 헌납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하늘의 재앙[天災]과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地異]은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배포조치(配布措置)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세종의 말이다. 이 말은 정치의 영역, 즉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를 보여준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그때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아서[不爲]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게 세종의 생각이었다. 세종은 “하늘의 운수로 이와 같더라도 사람의 일은 다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사람의 일이 조금도 결점이 없는데도 굶어 죽는 사람이 그대로라면 그것은 하늘의 일이다. 그러나 만일 사람의 일이 흑시라

도 미진함이 있다면 상과 벌이 없을 수 없다”(세종실록 19년 1월 22일)라며 관리들을 독려했다.

흥미로운 것은 당시 승지들의 반응이다. 왕 자신이 국가가 처한 어려운 사정에 비추어 ‘자기부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자, 승지들은 조정 모든 관료의 과전을 일정하게 줄이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세종은 수양대군 등 대군들의 과전을 50결씩 줄이고, 부마 연창군 등은 30결씩 줄일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세종은 이제부터 “대군의 밭은 250결에 지나지 않게 하고, 여러 군(君: 왕의 서자)의 밭은 180결에 그치게” 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법제화했다(세종실록 19년 1월 12일).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는 이 기록은 이른바 세종시대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여준다.<sup>37)</sup>

---

37) 같은 해(재위 19년) 1월에 관료들의 봉급도 일제히 감액되었다. 1~2품은 공 3석을, 3~6품은 공 2석을, 7품 이하는 공 1석을 줄였다. 명주와 정포 등도 줄였다(세종실록 19년 1월 6일).